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82.52	↑ 코스닥	844.72
	(+46.00)		(+4.74)
↓ 금리 (미국 9년)	3.440	↓ 환율 (원-달러)	1376.10
	(-0.012)		(-8.40)

metro® 경제

전환기 韓경제
혁신에서 길을 찾자
건강한 사회 '개혁과제' 03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가능성… 시추계획 승인”

尹대통령 취임 첫 국정브리핑
엑티오 심층분석·전문가 검증 천연가스 29년, 석유 4년 사용량 연말부터 탐사, 내년 상반기 결과 확인 후 2035년 상업적 개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이 가치는 현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2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통산자원부의 동해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계획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1966년부터 해저석유 가스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그 결과가 1990년대 후반에 4500만배럴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3년 전인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인 2023년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엑티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면서 “최근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사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이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취재진 앞에 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및 매장 추정량에 대해 “최대 140억배럴까지도 가능성 있다고 본다. 잠재가능성만 보면 막대한 분량”이라며 “추정하기로는 4분의 1정도가 석유이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4년 분량,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할 양”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향후 탐사시추 통해 정확한 규모와 위치를 확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올 12월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될 것으로 보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실제 매장량이 확인된 후 상업적인 시추 준비를 하게 되면

2027~2028년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에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과다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대 매장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 가치로는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5배”라며 “매장량을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

탐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안 장관은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오는 동해가스전 개발 비용이 총 1조 2000억원 정도 들었다”면서 “탐사 비용 자체를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이나 주요 현안 등이 있을 때는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고물가→소비 위축 경기둔화 우려 증폭

美, 개인지출 감소… 韓도 내수 하향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까지 치솟을 때에도 끄떡없던 미국 소비자가 지갑문을 닫고 있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지속되자 이를 체감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 물가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가 빠르게 둔화할 경우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개인소비 지출(PCE) 보고서에 따르면 4월 개인소득은 한달 전과 비교해 0.3%, 개인지출은 같은 기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개인소득이 0.5%, 개인지출이 0.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소득과 개인지출 모두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경우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빠른 속도로 지갑을 닫을 경우 기업 실적 감소해 기업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소비 감소가 미국의 증시와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를 인하할 수도 없다. 한국은행이 올 초 발표한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안정기로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전환한 경우였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없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고물가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상승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했지만, 4월부터 내수가 하향곡선을 탔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가계의 이자지급액이 2021년 총소득의 약 4.4%에서 2023년 7.3%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는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된다면 억눌린 소비여력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도 여전히 물가가 높아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2.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생산량 확대… 글로벌 공략 ‘액셀’

1분기 EV·HEV 글로벌 판매 ‘톱5’
울산 3공장 ‘투싼 HEV’ 추가 생산
美 조지아주 ‘HMGMA’ 조기 완공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량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불어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현상에도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연기하는 것과 달리 당초 계획한 대로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

생산라인 확대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글로벌 판매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의 경우 전 세계 시장에 10만 4000여대를 판매하며 중국 전기차 브랜드를 제외할 경우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에 이어 4위에, 하이브리드차는 17만 6000여대를 판매하며 토요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스즈키, 혼다에 이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생산량 확대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

이다.

우선 현대차는 북미 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생산량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다음달부터 울산 1~5공장 중 3공장에서 투싼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예정이다. 그동안 투싼 하이브리드는 5공장에서 생산했지만 공급량 확대를 위해 3공장에 투입해 연말까지 1만여대를 추가로 생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차량은 북미 시장 수요 대응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도 투싼을 생산했지만 하이브리드는 국내에서 전량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이처럼 투싼 하이브리드 수출에 집중하는 것은 판매량은 물론 수익성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판매 가격보다 1000여만원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또 현대차그룹은 내년 완공 예정인 목표로 조성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메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올 하반기로 앞당겨 완공하고 조기 가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는 아이오닉 5와 EV9 등을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6개 차종을 생산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추경호 與 원내대표,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 관례 무시한 의회 독재”
▲ 與 ‘당권주자’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 김건희 특검 거당 ‘맞불’ /사진 뉴스시스

▲ 野 “채상병 사건尹 개입 확실… 훈련병 영결식 날 與 워크숍서 술판”
▲ 조국신당, 공수처에尹 고발… “수사 거부 시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尹, 돈보일 때 나서고 책임질 때 철저히 숨어” /사진 뉴스시스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정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3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형산에서 바라본 포항 영일만 앞바다 수평선의 모습. /뉴스1

“추정액 1900조 가량 연내 시추작업 돌입”

140억 배럴 석유 채취 계획

경북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연내 시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물이 확인되더라도, 첫 생산은 10년 가량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선 올해 연말께부터 시추에 주력하겠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장 예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냐는 질문에 “심해 1km에서 더 들어간다. 영일만 38~100km 범위로 확장된다”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두 포함, 상대적으로 큰 범위”라고 답했다. 최초로 예정된 시추 지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경제성 있고 유망하다고 예상하는 부분부터 시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추 5공 이상 시추해야 규모 알 듯

동해 가스전, 100% 국내서 인수 매장량 가치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수입물량 대체 후 남은물량 수출

기대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는 2026년까지 우선 지속적으로 시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 5공 이상 시추를 해야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며 “얼마나 뚫을지는 중간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에 나오는지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도 했다.

판매가격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40억 배럴 기준 평균가격으로 산정하면 1조4000억 달러(1927조3800억 원)로 추정한다”면서도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부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판매가격도 생산국에 연동되는 만큼 그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가치는 현 가치로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에 달한다고 한다.

부존량(꺾 수 있는 양)과 관련해서는 “동해 가스전은 한국가스공사에서 100%, 즉 국내에서 인수한다”고 말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지역



다. 또 부존량을 확인하면 1일 생산량을 대략 알 수 있고, 그 이후 어느 정도 국내에 도입하고 난 뒤 해외 판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수입할 때)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할 물량을 대체한 뒤 남은 물량을 외국에 팔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수입 대체효과와 국내 수익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분석에 들어가면 경제성 있게 파낼 수 있는 부존량이 얼마인지 확정될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쳐 실제 생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오는 2035년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질문에는 “매장량이 확인되더라도 우리에게겐 경험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해외 투자가 필수다. 다만 현재 어느 업체에서 우리 투자에 관심 있는지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시추공을 뚫어보면 리스크를 가늠할 수 있다”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 국내, 리스크가 높다면 해외 투자유치 비중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에서 석유공사가 출자하고 정부가 지원한 것을 토대로 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다. 1공 시추 결과가 나온 후 중간 과정에서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갈 지는 확정할 수 없다. 탐사 들어간 비용도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다만, 동해 탐사에는 3억7000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SK 성장역사 곡해 유감… 진실 바로잡을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유감 표명 “그룹 가치·구성원·자부심에 상처 SK·국가에 부정적 영향 없게 최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를 놓고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판결 내용을 두고서는 “SK가 성장해 온 역사를 부정한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임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로 매월 1회 모여 그룹 차원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법원까지 재판 결과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경영과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으로서의 대외 일정 등 계획된 활동을 예정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그는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방향성도 밝혔다. 우선

“그린·바이오 등의 사업은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반도체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통해 ‘AI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 중 정부 특혜가 있었다는 항소심 재판부 언급에 대해 압도적 점수로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 압력으로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바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음에도 정경유착 등 부정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법원이 곡해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최창원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수출 7000억 弗 고삐… 수출금융 5조 추가 ‘365조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시중은행 수출 우대상품 2조 공급 나프타 등 올해 관세율 0% 적용

올해 7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 목표치가 제시된 바 있다. 정부는 3일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추가(5조 원대)를 비롯해 나프타·LPG에 대한 관세율 0% 적용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꺼내 들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수출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해 총 365조 원을 공급한다.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



품도 2조 원 규모로 새로 공급해, 민·관 합동의 추가 지원이 포함 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어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맞바람을 이겨내며 전진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핵심 수입원 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을 낮추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핵심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전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한다.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무역통계

를 새로 만들어 반기마다 공표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 인성 기준인 ‘제작비에 대한 내국인 출자 비중’을 30%에서 20%로 완화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수출지원체계 효율화에도 나선다. 올해 안에 서비스 가격공개 의무화·정성평가 지표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각 부처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합 공고한다. 이어 수출 일반지원·전문분야 등 해외거점간 협력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중 체결한다.

또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으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을 기존 25개국에서 내년부터 30개국으로 늘린다. 숨은 규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중장기 인력양성 로드맵도 수립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현대차 美법인, 지난달 판매량 12%↑

>> 1면 ‘현대차그룹, 친환경차…’서 계속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등 미국 남동부를 북미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차량·부품·배터리 등 전동화 밸류체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22년 55억4000만 달러(약 7조9000억원)를 투자해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착공한 HMGMA는 북미 유일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 적용 공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급적인 방향이 전기차라는 점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북미 시장에서 판매량 증가세를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1일(현지시각) 올해 5월 판매량이 7만8485대로, 지난해 같은 달(7만1대)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 줄어든 바 있다.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현지 전기차 판매량이 42% 증가한 결과다. 전년 동기 대비 아이오닉5가

82%, 아이오닉6가 13%, 투싼 하이브리드(HEV)가 54%, 싼타페 HEV가 116%, 팰리세이드가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아도 미국 시장서 판매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5월 판매량은 7만5156대로, 전년 동기(7만1497대) 대비 5.1% 늘었다. 앞선 4월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한 바 있다. 기아가 판매량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차 EV9의 역할이 크다. EV9은 지난달보다 39% 증가한 2187대 팔리며 역대 최고 월간 판매를 기록했다. 전체 전기차 판매 역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7% 늘어나, 7197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사진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정책·제도 개혁 관련 이미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 연금 등 사회적 대화·합의 서둘러야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下> 개혁과제

저출산, 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다. 통계청은 올 합계 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출생아의 수가 1명이 안된다는 의미다.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가파르다. 올해 주민등록 인구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의 인구수가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오는 2050년 고령인구 비중이 43%를 넘어설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회보험

사회 변화에 걸맞는 구조개선 시급
국민연금, '저부담 고급여' 등 한계
일각선 '완전적립식' 형태 제안도

사회가 늙어가면서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변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 해외시장의 공통점은 국가의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 세대에 맞는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뭇 받는 데 왜 내요?"... 10~20대와 연금 개혁

오는 2055년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인 55세를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의 10~20대는 연금을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공적소득보장 제도인 만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이 요구된다.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전문가들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을 미래 세대가 채우는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강구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한계 요인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인구구조'와 '저부담 고급여'다. 저출산에 따른 미래세대 감소가 예견된 만큼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대응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특정 세대가 낸 연금을 별도로 적립하고 운용해 지급한다. 기성세대가 소진한 연금분을 미래 세대가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당장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총력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려고 한다"며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연금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집 없는데 결혼?"... 30~40대와 부동산 개혁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집계됐다. 남성의 경우 최근 10년간 1.8세, 여성은 1.9세 상승했다. 초혼 연령이 4.6년 늦어지면 출산율이 0.5명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동산 개혁을 꼽았다. 가

장 먼저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39세의 주택소유율은 37.7%다. 30대 3명 중 2명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 30대 미만으로 살펴보면 소유율은 더 낮아진다. 같은 기간 30세 미만의 주택 소유율은 11.2%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수요조사와 연구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지역 및 주거형태를 먼저 수집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예비 입주자의 요구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행하는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택보급 정책을 지방정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지역자치단체에 주택도시금융 활용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해석이다.

부동산·일자리

저출산 지속... 청년 주거불안 등 영향
지역·형태 등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신노년세대 경험·역량 일자리 활용"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주택보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임대료, 입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은퇴하면 어디로?"... 50~60대와 노동시장 개혁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에 이어 'X세대(1965~1979년생)'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6.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점차 일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5%가 공익활동 참여자다. 정부 지원 없이 일하는 노인 비중은 25%에 그치는 셈이다.

공익활동 참여 노인의 91.6%가 월 27만원 이하의 급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에서 중위소득 32% 이하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117만8435원(2인 기준)을 추가로 수령해도 생활비를 월 145만원 미만에서 충당해야 한다. 김동업 미래에셋투자자와 연금센터 본부장은 지난 3월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월 232만원으로 예상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공공형일자리도 노동시간이 단기간에 그치고,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제안이다.

김기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소득보장 기능, 신노년세대 역량·경험을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수요를 파악한 정책목표 수립이 요구된다는 것.

김 부연구위원은 "향후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방안은 필수다"라며 "경험과 역량을 갖춘 신노년세대 수요를 감당할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장과 여야 간사들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 2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업계 부실개선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자유총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뉴스

한국 AI법, 실효성·속도 ‘낙제’... 포괄적 프레임워크 필요

AI 어디까지 왔나

<下> 챗GPT가 말하는 韓 AI

“한국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AI 윤리기준’ 등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으나, 법제화 속도와 포괄성의 부족,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술의 혁신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의 세 문장은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법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다. 챗GPT가 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08초였다.

AI와 인간의 협업은 헬스케어·자율주행·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인간의 영역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국가나 기업들은 AI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련 산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전사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AI 관련 법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는 ‘AI기본법’도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가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법제의 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챗GPT와의 ‘대화’와 ‘검증’을 통해 알아본다.

▶(대화)

기자: 한국의 AI 관련 법률이 법제화 속도와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뭐야?

챗GPT: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법적 대응 지연 ▲포괄적이지 못한 법률 ▲데이터 활용의 제한 ▲윤리적·사회적 측면의 부족 ▲산업 진흥 정책의 실효성 문제 때문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정상세션(화상) 개최사 및 서울선언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Y교육박람회 2024을 찾은 학생이 인공지능 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증)

문재인 정부가 범부처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윤석열 정부가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안전·혁신·포용’을 AI 글로벌 규범으로 제시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미래 먹거리인 AI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나서고 있다.

반면, 이를 지원할 한국의 AI 법제화 속도는 뒤처지고 있다. 챗GPT도 지적했듯이 21대 국회의 AI 관련 입법 성적표는 초라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AI 입법 수요 및 과제 연구’에서 제시한 21대 국회의 9개 인공지능 관련 입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단 한건에 그쳤다.

사람의 일상 중심으로 발전 가속 AI기본법 등 대비위한 준비 부족 韓 22대 국회, 윤리적 틀 마련해야

AI 기술 관련 윤리, 책임,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도 AI기본법이라고 불렸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9개의 법률 대부분 AI기술 규제 위주였고, AI 산업 진흥과 지원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화)

기자: 미국과 유럽의 AI 주요 법률 발의와 입법 성과는 어때?

챗GP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명령을 발

효했다. 이 행정명령은 AI 기업들이 정부와 모든 AI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AI 관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I TF를 구성할 계획이야. 유럽연합은 2024년에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률인 인공지능법을 채택했어. 이 법안은 안전, 생계, 권리에 위협을 가하는 AI 응용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고위험’ AI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해. 여기에는 의료, 교통, 국경 통제, 교육, 사법 등의 분야가 포함돼.

▶(검증)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포괄적인 AI 관련 법률안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국 주별로 AI 입법을 대응하는 모양새지만, AI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연방 입법인 ‘알고리즘 책임법’을 지난 2022년 첫 발의한 뒤 지난해 재발의를 추진 중이다.

알고리즘 책임법은 ADS(Automatic Decision Systems·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나 AC DP(Augmented Critical Decision Process·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관련한 요약 보고서를 FTC(연방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역시 2023년 6월 14일, AI 사용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를 통과하면 2026년부터 시행된다. 인공지능법은 AI 기술 진흥과 AI가 초래할 위협의 방지 사이 균형을 목표로 AI의 사용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며 공공에 위협을 초래하는 AI 사용의 경우

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법은 AI시스템을 크게 ‘위험 최소화 또는 없음’, ‘특정 투명성의무’, ‘고위험’,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나눠 규제한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만큼, 22대 국회에선 글로벌 AI 법 질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챗GTP 검증서 법제화 문제 꼬아 법적 대응 지연, 실효성 저하 우려 EU 참고해 한국 맞춤형 입법 필요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정책대학원 교수는 AI 입법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이 사회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재난과 관련된 위협을 완화 및 줄이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일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의 규정은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잠재적 인권 위협으로 인식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법률 규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라며 “우리 입법에서도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사진은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한국 AI 법제화 중요성 관련 이미지.

T 개발자와 F 디자이너,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지성인들의 집단지성

KT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AICT 유망 사업 육성 핵심 거점의 인프라와 자원으로
입주 벤처·스타트업 대상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협력 지원으로 성장 기회 제공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국민의힘 전대, 한동훈 언급 '지구당 부활' 쟁점으로 떠올라

與 윤상현, 野 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韓, 투명성 보완하면 큰 부작용 없어 전대·대선서 원외 위원장 표심 겨냥 나경원 등 수도권 원내 당권주자 호응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선출 규칙에 이어 이번에는 '지구당 부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폐지됐다. 당시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의 상징이었는데,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정치개혁을 주장하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당의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구당 부활이 화두가 된 셈이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도입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다. 그리고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였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때 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벌어지자 지구당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고, 2004년 '오세훈법' 통과로 폐지됐다.

이에 현행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지역 사무실 운영과 유급 직원 고용을

할 수 없고, 선거 기간 외 정치 후원금 모금이 불가능하다. 자체적인 현수막 게재도 어렵다.

지구당 부활을 가장 먼저 화두로 던진 이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자. 한 전 위원장은 최근 4·10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수도권과 청년 유권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차떼기' 사건 수사를 해본 경험을 근거로 들며,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완한다면 지구당이 부활해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면서도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했다.

만일 한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인사도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붙일 수 있고, 후원금 모집 등이 가능해진다. 원외 당협위원장(지

역위원장)과 현직 국회의원이 활동할 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내건 것 역시 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등 원외 위원장들이 4년간 야당 지역 현역의원에 맞서 지역 활동을 하려면 현행법 상으로는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을 내다보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구당의 부활은 원외 '당심(黨心)'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권을 노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90명에 불과해, 원외 위원장들이 더 많다. 현역 국회의원은 영남권이고, 대부분 원외 위원장은 비영남 지역이 많다. 이들의 마음을 잡으면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자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원내 당권주자들이 호응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

안으로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사무처에 지구당 부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오세훈법'을 발의해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SNS에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이권에 개입하는 먹이사슬"이라며 "미국처럼 당대표 없이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 고비용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전당대회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등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원의 위원장에겐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방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긴다"며 모든 정치인에게 한도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관리 하에 후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남북 '9·19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 수준

국가안보실, NSC 실무조정회의 전체 효력 정지 안전 국무회의 상정 군사분계선 훈련·도발 즉각 조치 가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전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전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보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기로 했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앞서 장호진 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복합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뿐 아니라 대북 확성기 방송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이라며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李 "저출생 대응 여야정 협의체 설치 제안"

당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협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존속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 기구로 두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 내에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다만 특정 현안·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 힘을 모아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우리 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더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바가 있다"며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촉구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가 다룰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어느 때보다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서 제시해 주시고,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서울시의 정관복원수술 지원 정책 등을 비판하며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니냐"며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진정한 대책인지 참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尹, 아프리카 10개국과 연쇄 정상회담

총 13명 참석국 정상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참석국 정상과 연이어 만나, 공급망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만난 참석국 정상은 총 13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10개국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30분 간격으로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정상과 각각 오·만찬 회담을 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시에라리온 정상과 오찬 회담을 가졌다.

이들 국가는 4일 개막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공식 방한국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25개국 정상과 만나 양자 회담을 하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난 정상들과 양

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석유화학·IT·통신·원자력·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해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 경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또 한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 에티오피아,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고, 탄자니아와도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 요소를 포함한 EPA를 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아프리카에는 크롬·망간·코발트 같은 첨단산업 분야 핵심 원료가 풍부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 협력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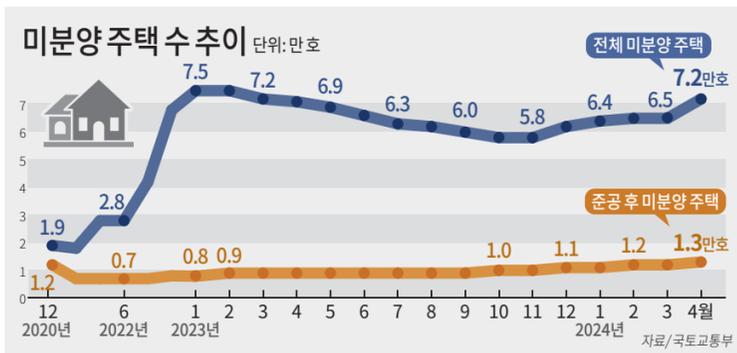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미분양 7만호 넘었다... 수도권도 줄줄이 미달

4월 미분양 7.2만호, 10.8% 증가 전국 미분양을 들어 다시 증가세 지방보다 수도권 증가폭 확대 악성 미분양도 1.3만호, 6.3% ↑



분양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1년여 만에 다시 7만호를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줄줄이 청약 미달이 이어졌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 진행한 아파트 11곳 가운데 5곳서 미달이 발생했다. 미달이 아닌 곳도 경쟁률이 낮거나 2순위에 채워졌고, 일부 평형에서는 청약자가 한 두명에 불과했다.

기존 미분양이 많았던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청약이 부진했다.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일대에 지어질 '이천자이 더레브'는 603가구 모집에 286가구만 청약 접수가 들어왔다. 2가구를 모집했던 전용면적 185㎡ 펜트 하우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입에서 2순위 기다지역까지 청약을 받았지만 모두 미달됐다.

이천의 경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더 나빠졌다. 작년 11월에 분양한 '이천자

이 더 리체'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었다. 분양가는 두 곳이 같았지만 청약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경기도 양평군의 '양평 하늘채 센트 로힐스' 역시 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191가구 모집에 25가구만 청약이 접수됐다. 대부분의 평형에 한 두건만 청약이 들어왔다.

오산세교지구에서 선보이는 '오산세교 2 한신더휴(A16블록)'는 일부 대형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경기권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들어설 '김포 북변 우미 린 파크리브'만 1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됐다. 경쟁률이 높지 않아 청약 27점 통장도 당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분양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역시 미분양은 면했지만 낮은 경쟁률로 계약이 마무리되어야 완공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작년 12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7만1997호다. 전월 대비 10.8% 늘면서 다시 7만호를 웃돌았다. 7만호를 넘어선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2월 7만5000호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12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증가폭

으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이 지방보다 확대됐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1만2968호로 전월 대비 6.3% 증가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지난 3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신연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도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수도권보다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방 미분양 해소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지방 역시 미분양 발생 지역이 광범위하고, 물량은 많은 반면 제시한 대책이 효과가 있을만한 지역은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판단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카드 News

비씨카드-페이넷 말련 가맹점 200만곳 페이북QR 서비스 추진

비씨카드가 말레이시아를 교두보로 '아세안 결제 네트워크' 구축한다.

◆동남아 국가와 3번째 협업

비씨카드는 말레이시아 국가 표준 QR결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페이넷과 협업을 통해 현지 결제시장에 진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이어 3번째 동남아시아 국가 협업 사례다. 아세안(ASEAN) 시장 내 입지 확대 및 세계 시장 사업처를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에서 이용했던 '페이북QR'을 말레이시아 내 가맹점 200만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편의성 ▲범용성 ▲안정성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신한 처음 카드 플레이트. /신한카드

신한카드 '처음' 음식점·쇼핑·OTT 등 사회초년생 맞춤 혜택

신한카드가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 신용카드를 공개했다.

◆소비 관리 활동 지원 선택

신한카드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적립 및 소비 영역에서 고민 덜어낸 '신한카드 처음'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예산 관리를 공유하는 2030세대의 특성과 이용 빈도 등을 반영해 서비스를 구축했다. '오늘도 5% 적립 서비스'는 매일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이용금액의 5%를 매일 최대 1000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일상 속 5% 적립 서비스'는 ▲생활 가맹점 ▲패션 플랫폼 ▲여행 영역 등에서 5% 적립을 지급한다. 생활과 여행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낸 것이 핵심이다. '정기결제 최대 20% 적립 서비스'는 고정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멤버십(20%) ▲동영상재생서비스(15%) ▲통신(10%) 등 분야에서 적립을 적용한다.

KB국민카드-뚜레쥬르 나라사랑카드 결제시 최대 15% 할인 적용

KB국민카드가 뚜레쥬르와 제휴를 맺고 할인을 제공한다.

◆군복 입고 결제하면 음료 1잔 무료

KB국민카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뚜레쥬르에서 나라사랑카드 결제하면 최대 15% 할인을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다음해 12월 31일까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평일 10%, 주말 15%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한도는 1일 최대 20만원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iM뱅크' 출범 D-1... 특판 앞세워 전국고객 몰이 나선다

'연 20%' 초고금리 초단기 적금 등 8월 말까지 쏠분야 특판상품 이벤트

지난달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마친 DGB대구은행이 오는 5일 전국구 시중은행 'iM뱅크'로 재출범한다. DGB대구은행은 iM뱅크 출범일에 발맞춰 고금리 예·적금 선행 판매, '연 20%' 초고금리 초단기 적금 등 각종 특판 상품을 앞세운 고객 유치에 나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오는 5일 은행명을 'iM뱅크'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전국 영업을 개시한다. 이는 지난 5월 16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한 지 3주 만으로, 대구은행은 전국 영업을 앞서 각종 특판 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iM뱅크'를 알리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5월 20일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기념해 오는 5일부터 8월 말까지 예금·적금, 외환, 대출, 편



대구은행 제1본점. /DGB대구은행

드, 카드 등 금융권 전 분야에서 특판 상품 및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최고 연 4.15% 금리의 정기 예금·적금 'DGB함께 예금·적금'을 비대면 선행 출시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연 4.15%의 금리를 제시한 만큼 'DGB함께 예금'은 빠르게 판매됐고, 지난달 31일 한도를 모두 소진해 오는 4일까지 판매된다.

이날 'DGB함께 예금·적금'과 함께 공개된 초단기 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도 연 20%에 달하는 금리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5일 판매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가입 기간 2개월, 최대 납입금액 300만원(일 납입액 5만원 기준)의 초단기 적금으로, 납입 횟수에 따라 최고 연 20%에 달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초단기 적금이 주목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토스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만기 6개월 미만 초단기 적금이 자금 불안정성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한 초단기 적금의 금리가 최대 연 3.5~8%에 그쳤던 만큼, 금리가 연 20%에 달하는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은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이 짧은 초단기 적금의 특성상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대 5만원 가량이다.

대구은행은 판매 한도인 32만좌가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당행 연결계좌에서 직접 납입하는 상품인 만큼 미리 iM뱅크 앱 가입 및 입출금 계좌 등록을 진행해두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출범 이후 영업 전략으로 디지털 영업에 중점을 둔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내건 만큼 모바일 뱅킹 앱 'iM뱅크'를 앞세워 비대면 고객 확보에 나섰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

금감원 Q&A

Q. 채권추심과 관련해 소비자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첫 번째로는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수임사실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채무를 확인하고 응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금융사가 의심된다면 채권추심회사의 제도권금융회사 여부 및 대표 연락처 등을 금융감독원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

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 채권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은행, 저축은행 등 대출금, 신용카드회사의카드대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

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으나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는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십시오.

中, 정부 차원 전고체 R&D 추진... K-배터리 '초격차' 위태

중, 60억위안 규모 투자계획 발표
韓, 주요국 비해 정책대응 소극적
업계 "세계 혜택 등 정부지원 절실"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국내 배터리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저가 시장을 공략해 왔고, 한국 기업들은 삼원계 배터리로 고급 전기차 시장을 점유했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게 되면 고가 시장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2750만달러에서 연평균 180% 성장해 2030년이면 400억달러(한화 약 5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



지난 4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7회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 37)'에서 삼성SDI가 전고체 배터리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기 위해 약 60억위안(한화 약 1조1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단일 배터리 연구개발비로는 최대 규모다. 지원 대상은 CATL과 웰리온 등 배터리업체와 비야디(BYD), 디자자동차(FAW), 상하이자동차(SAIC), 지리자동차 등이다. 전고체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 발화와 폭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린다.

중국 정부의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지원 계획은 올해 초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원에 힘

입어 중국 업체들은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CATL은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소량 생산할 방침이다. 상하이자동차는 내년 생산라인을 구축한 뒤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에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지원 금액이 우리 정부 지원금(2028년까지 1172억원)의 약 10배에 달한다. 각 기업이 자체로 투자하는 금액을 고려하면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현재 한국의 삼성SDI와 일본의 도요타는 전고체배터리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삼성SDI는 단위 부피당 리튬이온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높일 수 있는 황화물계 기술을 채택한 전고체 배터리 개

발에 집중하고 있다. 양산 중인 각형 배터리 P5와 비교해 약 40% 정도 향상된 에너지밀도 900Wh/L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마친 삼성SDI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온은 2029년,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을 각각 양산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개발에 매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35%로 상향 조정됐지만, 규모와 방식을 놓고 보면 주요국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과 상용화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자금 지원과 세계 혜택 등 정책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엔비디아, 차세대 AI GPU '루빈' 공개

젠슨 황 대표, 컴퓨텍스 콘퍼런스 참가
"전 분야에서 1년 주기로 신제품 출시"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Rubin)'과 함께 미래 엔비디아 제품 출시 청사진을 공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 분야에서 "1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이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 컴퓨텍스(COMPUTEX) 기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젠슨 황은 "오늘날 우리는 컴퓨팅의 중대한 변화의 정점에서 있다. AI와 가속화된 컴퓨팅의 교차점이 미래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젠슨 황은 차세대 AI GPU '루

빈'을 공개하고 1년 주기로 출시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루빈 플랫폼은 곧 출시될 블랙웰(Blackwell) 플랫폼의 뒤를 이을 플랫폼으로 오는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루빈은 새로운 GPU와 Arm 기반 CPU인 베라(Vera), NV링크 6(NVLink 6), CX9 슈퍼NIC(CX9 SuperNIC), X1600 컨버지드 인피니밴드/이더넷 스위치(X1600 converged InfiniBand/Ethernet switch)를 탑재한 고급 네트워킹이 특징이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리듬은 1년 주기"라며 "우리의 기본 철학은 매우 간단하다. 전체 데이터센터 규모를 구축하고, 1년 주기로 구성 부품을 판매하며, 모든 것을 기술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 NIM(NVIDIA NIM)도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 NIM은 AI 모델을 최적화된 컨테이너로 제공하는 추론 마이크로 서비스다. NIM을 활용하면 개발자들은 코파일럿, 챗봇 등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몇 주가 아닌 단 몇 분만에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네트워킹 부문 신제품 출시 계획도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AI용으로 구축한 최초의 이더넷 패브릭인 엔비디아 스펙트럼-X(NVIDIA Spectrum-X)을 매년 증가한 대역폭과 포트, 향상된 소프트웨어 기능 세트를 갖춘 신제품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젠슨 황은 "모든 공장이 로봇화 될 것이며 공장은 로봇을 조율하고 로봇은 로봇화 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seoh@

금호타이어 '더 타이어 쉐프' 참가

'엑스타 스포츠 S' 등 공개

금호타이어가 6일까지 독일 쉐프에서 열리는 유럽 국제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쉐프 2024(이하 TTC)'에 참가한다.

금호타이어는 'TTC'에서 초고성능 타이어 신제품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 등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대거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 컨셉을 'Passion in Innovation & Progress-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최적의 주행 성능 구현을 위한 타이어 기술의 혁신과 진화'로 정하고, 초고성능 타이어 등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완벽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기술력을 알릴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화오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선배

포시도니아 2024

9만3000m³급... 친환경 기술력 입증

한화오션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 전시회에서 독보적인 친환경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화오션은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회원사의 일원으로, 한국관 공동부스에서 암모니아 연료 추진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9만3000m³급 VLAC)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연소시 이산화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향후 무탄소 시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한화오션이 선보이는 VLAC에는 친환경 기술이 대거 적용됐다. 추진 축에 모터를 연결해 발전함으로써 연료를 절



한화오션이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추진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감할 수 있는 축발전기 모터 시스템(SGM/Shaft Generator Motor),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인 HS4(Hanwha SmartShip Solution & Service)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유수의 선급들과 다양한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협력 및 인증이 예정돼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글로비스,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

에코프로 협업... 국내외 시장 선점

현대글로비스가 신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인 전기차(EV)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이를 위해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 에코프로와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에코프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전후방 사업 및 제조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국내외 재활용 사업 밸류체인 강화, 재활용 사업 운영 체계 최적화, 재활용 공정 자동화 구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협력한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를 위해 글로비스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물류 역량 및 전처리 역량과 에코프로는 후처리 역량 및 재활용 기술 역량 등을 활용한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EV 사용 후 배터리 SCM 최적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사용 후 배터리 물량



지난달 30일 에코프로 서울사무소 인근 별도 장소에서 열린 현대글로비스·에코프로 업무협약식에서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왼쪽)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물류 역량을 앞세워 국내외 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포부다.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재활용 사업 운영 체계 최적화, 스마트한 재활용 공정 구축 등을 갖추고, 국내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엔솔, 글로벌 배터리 스타트업 키운다

30일까지 'Battery Challenge' 접수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배터리 미래먹거리 찾기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분야 차별적인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Battery Challenge 2024'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Battery Challenge 2024'는 배터리 분야 스타트업이면 국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공모분야는 ▲배터리 소재 ▲BMS(Battery Mana

gement System) ▲배터리 공정 및 제어 ▲품질관리 ▲재활용·재사용 ▲스마트팩토리 ▲메탈소싱(Metal Sourcing) ▲New to LG 등 8개 분야이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3만달러의 상금이 제공되며 기술 협력과 투자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배터리 미래 기술 준비를 위한 투자 대상 확보와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차세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 고객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중소 졸업해도 세제혜택 최대 5년 '100개 유망기업' 3년간 밀착관리

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상장사는 최대 7년간 중소기업 혜택 중견기업, 중소기업 특례 18개로 늘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3년 → 5년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2년 추가 연장 (총 7년) ▶ 중소기업 졸업 후 R&D 투자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개 유망기업 선정, 3년간 밀착관리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기업 점프업 지원 (성장바우처 제공, 정부사업 우대)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개방·활용 통한 기업성장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장 자금조달 지원 (정책자금→민간금융 연계) ▶ 중소기업 M&A 지원 확대 ▶ 민간투자 연계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투자자 매칭 ▶ 이용 편의제고 (정책금융 정보 통합제공, 중견진입기업 맞춤형 정보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이 몸집이 커져 중견기업이 돼도 최대 5년간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기업은 최대 7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례도 현행 14개에서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등 18개까지 늘린다.

중견기업에게도 중소기업과 같은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를 선정, 3년간 밀착관리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 등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보다 2년 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대 7년간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본격 시행되면서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의 혜택도 2년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기존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에 더해 '중견기업법'을 추가 개정해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2개) ▲'이공계

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등 4개 혜택을 더 준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내년 2026년까지 2년간 허용한다.

제품 뿐만 아니라 용역에 대해서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벤처부 고시를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인 연간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비율은 10%, 중견기업은 13%, 대기업은 15%다.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 중견기업 진입 전후의 기업 100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우선 성장역량이 있으면서 신시장·신사업 진출, 기술혁신 등 새로운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는 중소기업을 선발한다. 민간투자(VC·CVC 등)를 받았거나 창업기업과의 기술협력 계획을 가진 기업 등을 우대해 민간의 선별 기능과 지원 역량도 활용한다.

전담 디렉터를 중심으로 스케일업 전

락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풀과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집중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인수합병(M&A)·해외진출·재무관리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 풀을 활용해 문제해결, 기술협력·이전, 투자유치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바우처를 발급해 일부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에서 비용도 지원한다.

수출, 인력, R&D, 용자·보증 분야 정부 지원 사업 우선선발, 가점부여 등도 우대한다. 수출의 경우 해외 판로개척 지원, 수출 마케팅지원 등 수출지원 사업 우선선발·가점 부여 등을 추진한다.

기업 성장지원 R&D사업 내 전용트랙, 가점부여, 연구비 집행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용자 상환기간 연장, 신산업진출·설비투자 등 자금지원 우대선정도 추진한다.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계기관과 함께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확보와 신사업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대출과 보증지원을 강화해 M&A 소요자금 마련을 돕고 장기적으론 기업 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 고용 승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KT, 국내 최초 부산 '인터넷 3센터' 구축

수도권 재난에도 통신 연결

KT는 국내 최초로 비수도권 지역인 부산에 인터넷 3센터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3센터는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인터넷 3센터는 재난, 정전 등으로 인해 수도권 위치한 메인 통신센터(1, 2 센터)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주요한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이 시설은 전국에 있는 주요 인터넷 장비 그리고 해외 통신망과 직접 연결됐다.

인터넷 3센터는 비상 상황 시에는 DR(재해복구)센터로 동작하고 평시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부산 처리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KT 임직원이 부산에 구축된 인터넷 3센터의 전체적인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KT

KT는 수도권 1, 2센터가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해 국내외 주요 포털 서비스와 금융, 언론, 동영상 서비스가 3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을 검증했다. /김서현 기자

SKT, 넷플릭스 요금제·기내 와이파이 출시

창사 40주년 맞아 전용서비스 개편

SK텔레콤이 올 하반기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 기내 와이파이 등을 신규 서비스를 선보인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어 등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제공하는 줌(ZEM) 앱(자녀용)의 아이폰 이용은 3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요금제, 로밍, 청년·어린이 전용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반기부터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3일 밝혔다. /SKT



SK텔레콤은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아 요금제, 로밍, 청년·어린이 전용 서비스, 장기 고객 혜택 프로그램 등 이동통신 서비스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반기부터 넷플릭스 OTT 결합상품과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3일 밝혔다. /SKT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구독 플랫폼 'T우주'에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서현 기자

삼표,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신사업 확대

계열사 에스피엔모빌리티 공략 박차

삼표그룹이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에서 영역을 확대한다.

삼표그룹은 계열사인 에스피엔모빌리티가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자동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셉 페르엠과의 합작법인이다.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셉 페르엠은 2017년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태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 관련 시스템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1만대에 이른다. 운영 효율성과 편리함 덕분에 최근에는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시장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직접 차량을 들어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처럼 사람이 직접 차량을 입고시킬 필요가 없는 만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팔레트 구조인 기계식 주차와는 달

리 이송장치가 결합돼 건물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병렬 주차가 가능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소한의 설비구조로 동일한 공간 내에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하 심도와 층고 감소가 가능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은 세단, SUV, 밴, 슈퍼카 등 모든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여기에 기본적인 입출고부터 지문 인식, 페이스 ID, QR 코드 등의 다양한 인증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내세워 에스피엔모빌리티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으로 국내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에스피엔모빌리티 관계자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수 국내기술로 이미 해외시장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국내에서도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 로봇주차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흡연소프 중소기업 해외판로 추가 지원 베트남서 소비재전 참가

흡연소프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024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했다.

3일 흡연소프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은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전시회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SECC 전시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렸다. /김승호 기자

"클라우드 제약없이 LLM 선택" SKC&C, 맞춤형 AI 랜딩존 선택

생성형 AI 구축 기간 30% 단축 운영비용도 10% 이상 절감 가능

SKC&C가 3일 기업이 'AI 랜딩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AI 랜딩존 서비스는 클라우드 자원을 안전하게 배포하고 관리하는 플랫폼인 랜딩존에서 IaC(Infrastructure as Code, 코드형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특화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도구 없이 프로그래밍 코드로 인프라를 구성하

고 관리하는 IaC를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및 운용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SKC&C는 금융 및 제조 등 주요 산업 고객들과 함께 진행한 여러 엔터프라이즈 AI 개발 사업에서 AI 랜딩존 서비스 우수성과 실효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AI 랜딩존을 도입한 결과,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고, 운영 비용도 10% 이상 절감됐다. AI 랜딩존은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든 다양한 LLM(거대언어모델)을 빠르게 연

계하고 활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빨간펜

Ai CANDO

1:1 초밀착 관리로 공부 빈틈없는

우리 아이 완전 학습

빨간펜 아이캔두

학교 맞춤
진도식 커리큘럼



1~6학년
전과목 교과연계



무료체험하고 선물 받기

전문 선생님의 1:1 화상티칭 관리로 공부 지구력 UP! 서술형 자신감까지!



매주 1:1 화상티칭
업계유일 1:1 초밀착 관리로
학습 집중도 향상!



서술형 티칭 커리큘럼
서술형 문항 티칭으로
서술형 평가까지 완벽 대비!



학습자 감성 케어
담임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로
학습 동기 부여!

증권사, AI 활용 기업 분석·차트 해석 등 서비스 경쟁 치열

KB증권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미래에셋증권 애플·스타벅스 등
美 상장기업 분기실적 AI 분석

한투증권 MTS에 'MY AI' 도입
개인정보·성향 맞춤형 랩 상품 추천

SK 증권 AI 올라·메이트 2종 출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사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과 차트 해석 등을 수행하는 이미지.

대형 증권사에 이어 중소형 증권사까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기업 분석 보고서, 차트 해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AI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증권사 간 AI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3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생성형 AI를 적용한 대화형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생성형 AI를 활용해 양방향으로 맞

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Stock AI' 서비스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PC와 태블릿에서도 이용 가능한 마블 와이드에도 적용했다.

하루에 가능한 질문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리고, 해외 주식에 관한 정보

등도 추가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애플·스타벅스·엑슨모빌 등 미국 상장 기업 분기실적을 AI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자체 AI가 공시자료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 담당 애널리스트가

틀린 정보가 포함됐는지를 감수한 후 최종 배포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적 발표 후 5시간가량 소요되던 분석 및 리포트 작성 작업을 5~15분 이내로 단축했다.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미래에셋증권은 AI 기술을 활용한 리포트의 양을 대폭 늘리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분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AI 기술 진보가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AI 리포트 서비스 '에어(AIR)'를 출시한바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올들어 자사 MTS에도 AI 기능을 도입한 마이 AI(MY AI) 서비스를 선보였다. MY AI는 한국투자증권 고객이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와 투자성향·투자계획·소득정보 등을 바탕으로 AI가 약 1억3000만번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고객에게 가장 잘 맞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랩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중소형 증권사도 대형 증권사들의 이런 분위기에 맞춰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증권사 간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지난달 24일 기업의 주요 정보를 대화형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비서 'AI올라'와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프라이빗뱅크(PB) 'AI메이트' 2종을 출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는 사람보다 빠르게 시장 변화를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증권사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고도화하고 있다"며 "AI 활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경쟁력을 높여 리테일 시장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美 주식거래 혜택 제공... 증권사, '서학개미' 유치 열전

개인, 지난달 해외투자 171.8억달러
동일 기간 美 매수액, 전체 약 95%
매수 수수료 0원, 환전 우대 행사 진행



(왼쪽부터)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포스터.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이 '서학개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0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벤트가 한창이다.

3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에 해외주식을 171억8737만달러(약 23조 6670억원) 매수했다. 전년 동기에는 102억7854만달러(약 14조 1535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 매수액이 증가한 모습이다. 동일 기간 미국주식 매수액은 164억3005만달러(약 22조 6159억원)로 전체 매수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 거래 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증권사들도 서학개미 유치를 위해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무

료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증정한 국내 26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외화증권 수탁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증가한 2717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1분기 16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보다 88% 급증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243억원·71%), 하나증권(55억원·66%), 토스증권(282억원·63%), KB증권(212억원·52%) 순이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8월 말까지 '미국주식 매수 수수료 ZERO' 이벤트를 실시한다. 신규 고객과 해외주식 휴먼고객이 미국 주식을 매매할 시에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달까지 '투자비용 제로(ZERO)' 캠페인 시즌 2를 통해 미국주식 온라인 매수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며, 삼성증권에서도 이달 말까지 신규 고객과 6개월간 미국주식 휴먼 고객들은 첫 거래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

이외에도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미국주식 매수 수수료 무료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전형숙 신한투자증권 DX그룹장은 "이번 이벤트로 미국주식에 관심 있는 투자자에게 더 쉽고 간편하게 해외주식 투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주식 거래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에는 1달러당 0.5원 수준의 환전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NH투자증권은 이와 더불어 관련 계좌 개설 시 투자지원금 3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쿠폰과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환전 우대가 12개월 동안 유지된다. 하이투자증권은 '글로벌 바로매매 서비스'를 운영해 미국주식에 대한 매매 서비스와 편의성을 확대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 경쟁도 지속될 수 있다"며 "특히 수수료 관련 이벤트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좋은 전략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감감이 배당' 개선 이행상황 점검

상장사 약 40%, 개선내용 정관 반영
취지 이해제고 위한 홍보 강화 필요

금융감독원이 배당금을 모른 채 투자해야 하는 '감감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고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배당절차를 개선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기업들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감원은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발표 이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

당을 실시한 기업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법무부, 금감원 등은 상법 유권해석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이사회가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배당 절차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원장보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도 새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결과 미리 배당액을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의 배당금 문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분리대 업무 부담이 완화되는 등 순기능이 있

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한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다만 배당절차 개선 취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정관 개정 및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부원장보는 "앞으로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신한투자증권, 하반기 조직개편·인사 실시

자본시장 중심 'One WM' 추진
디지털 사업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

신한투자증권이 2024년 하반기 정기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 중심으로 연결과 확장을 통한 자본시장 중심의 'One WM' 추진, 그리고 디지털 사업의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6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은 먼저 그룹 차원의 자산관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해 자산관리총괄 조직을 신설한 점이다. 자산관리총괄은 증권·은행의 프라임 웰스매니지먼트(PWM)와 증권 자산관리 비즈니스 역량을 하나로 집중해 증권고객뿐만 아니라 은행고객에게도 차별화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략, 성과관리, 인사(HR), 내부통제 등 그룹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모든 역량을 'One WM' 관점에서 추진하며, 고객 중심의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증권과 은행의 협업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총괄대표는 증권과 은행 겸직으로 증권 자산관리부문과 은행 WM그룹을 총괄한다.

다음으로 디지털사업의 자기완결형 체계 구축을 위해 자산관리사업그룹을 플랫폼그룹으로 재편하고, 전자디지털 및 플랫폼 관련 조직을 집중 편제한다. 플랫폼그룹은 전자 디지털 마케팅·설계·개발·운영업무를 일관화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 인공지능(AI) 솔루션, 다양한 외부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 정교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디지털 마케팅 등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자산관리 비즈니스의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에 있다"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류(一流) 신한투자증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美기업 성장세 뚜렷… 안정적 배당에 이상적 수익”

“국내 증시가 희망이 없어 미국 시장으로 향했다”

미국 증시가 매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도 국내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하자, 동학 개미(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국내 증시는 답이 없고 미국 증시가 답이다’라는 말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보다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엑소더스 코리아, 돈이 떠난다

〈中〉 서학개미 투자기

올들어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든 직장인 A씨(35세)는 “최근 정부가 국내 증권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증시와 달리 주가 상승을 이끄는 대장주들이 많은 미국증시에 투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 B씨(27세)는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테슬라·메타 등 ‘매그니피센트7’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포모(뒤처짐에 대한 공포) 현상’도 왔다”고 했다.

◆국내 증시, 불투명성 크고 외부 변수에 좌우

“한 예로 사슴을 사냥하는 국가인 캐나다의 총리가 한국 방문하면 노루페인트에 투자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국내 주식 시장은 문제가 많다” 이같이 국내 증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조롱섞인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등 돌린 이유로 오너 리스크, 주주 환원 부족 등을 꼽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 보니 주가는 여러 호재에도 잠깐 반등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적이 많다”면서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는 이벤트나 환율 등 외부 변수에 의해 쉽게 좌우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계 제약사 직원 C씨(45세)는 “중국은 투자 인구가 많아 그런지 호재 반영도 빠르고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 수익 내기가 쉽다”면서 “이에 반해 국내 주식시장은 일단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실

황기업, 지배구조 불투명… 호재엔 잠깐 반등 이벤트·환율 등 외부변수에 쉽게 좌우돼 불안 공매도 재개·금투세 폐지 등 논란에 혼란 커져

中 투자, 호재반영 빠르고 실적 좋으면 급상승 美 증시, 비교적 투명한경 유지… 투자 매력적 배당·지속성장 담보… 종합적 수익률 ‘안정적’

적이 좋다고 해서 투자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다”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도 지치고, 호재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니 국내증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D씨(36세)는 “실제 투자한 국내 기업 중 호실적을 기록함에도 주가 상승이 크지 않은 반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직하게 주가에 반영되는 데다 비교적 투명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국내 시장보다 투자하기가 훨씬 매력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예를 들면 공매도 재개, 금투세 폐지 논란 등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 대표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당근을 내놓더라도 투자자들이 믿지 못해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란, 공매도 재개 등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을 피해서 이제 미국, 일본, 인도 등 해외시장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증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높아”

해외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린 개인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었다. 특히 배당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김 모씨는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배당과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돼 있다”며 “안정적으로 배당 중심 투자를 통해 재투자 사이클을 반복할 수도 있고, 기술 주 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통해 수익률 확대를 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투자자 E씨(27세)는 “미국 주식에 투자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배당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배당을 주는 미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외 기업들의 성장성을 해외주식 장기 투자 이유로 들었다. 성장이 정체된 국내 기업과 달리 미국 기업은 성장 추세가 뚜렷하고 가시화된 성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대 회사원 D씨는 “미국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 보다 꾸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단기투자보다 이상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투자 종목 등을 살펴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등으로 미국대표 빅테크 기업의 장기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

A씨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서학개미 관련 이미지.

커피 찌꺼기가 스타벅스 쟁반으로... 韓 첫 순환자원제품 인증

환경부, 스타벅스·삼성 확인서 발급
삼성전자, 폐 IC트레이 원료 사용
스타벅스, 추출 커피찌꺼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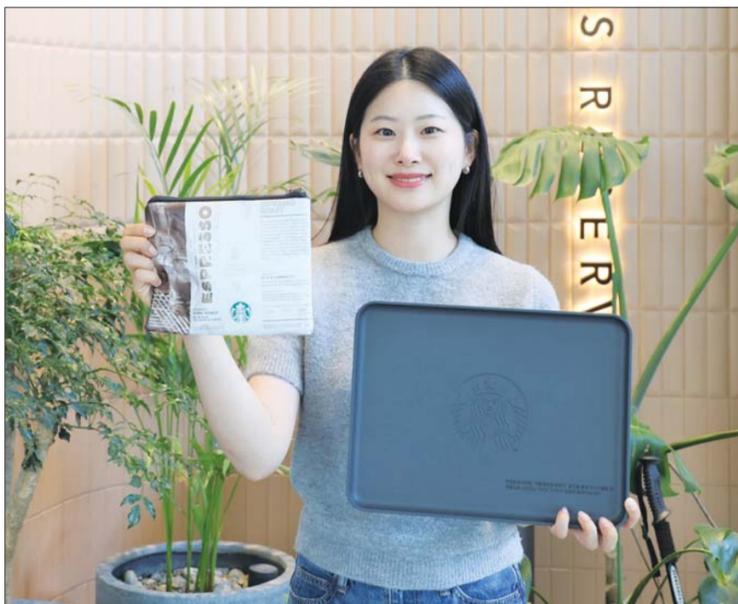
스타벅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용하고 남은 원료를 재활용해 만든 쟁반이 국내 최초의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일 SCK컴퍼니의 스타벅스 '커피박 트레이'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IC트레이'를 순환자원 사용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관련 인증마크가 붙게 된다.

스타벅스커피박트레이는 매장에서 원두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커피찌꺼기를 제품 제조원료(20%)로 사용했다. 삼성전자 IC트레이는 충남 온양사업장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한 폐 IC트레이를 분쇄해 이를 제품 제조원료(12%)로 썼다. IC트레이란 반도체집 제조 공정상 이동 또는 판매할 때 사용하는 용기를 뜻한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올해 1월 시행)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이 함유돼야 한다.

확인 받은 제품은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순환자원사용제품, 환경



원두 팩 파우치·커피박 트레이 모습.

/스타벅스코리아

부'라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의 경우,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 심사받을 수 있다.

서류심사·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당 제품의 원료로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 여부 및 비율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순환자원의 사용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단체나 일반 기업에도 우선구매를 요청하거나 또는 권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 경주에 돌입했다"며 "순환자원 사용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과 생산량 평년 수준... 화상병 경계 강화”

송미령 장관, 예산농가 생육상황 점검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49만(t)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 1분기 급등한 바 있는 사과 가격의 안정화 여부가 주목받게 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사과 주산지인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가 및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과 농가 방문은 '2024 사과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송 장관은 “전국적으로 적과 작업과 과실 비대 등 생육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49만t)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과수 화상병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발생면적은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1% 수준으로 올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충남 예산의 한 사과 농가를 찾아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

일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과수 화상병 확산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는 의심되는 나무 발견 시 바로 신고해달라며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작업도구 소독, 과원출입 통제, 작업자 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폭염과 태풍, 탄저병 등 여름철 재해에 대해서는 “농협·농촌진흥청·지자체가 합세해 방제약제 적기 살포, 배수로 정비,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영정보 시각화능력시험’ 5233명 몰려

첫 시험에 20·30대 중심으로 응시

자격시험이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18일 제1회 경영정보시각화능력(BISpecialist)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첫 시험에도 불구하고 20~30대들 중심으로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 총 5233명이 응시해 정보시각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드러냈다.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은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프로그램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국가기술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영정보시각화능력을 새로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했다. 시험은 단일 등급으로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번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성별은 여성(51.5%)이 남성(48.5%)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43.1%)가 가장 많았고, 30대(35.0%), 40대(14.9%), 50대(6.0%), 10대(0.5%)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는 임금근로자(53%), 구직자(23%), 학생(16%) 순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라인쇼핑 19.8조... 농축수산물 26% ↑

통계청,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온라인 생필품 등 전반적 우상향 추세

지난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10%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월 거래규모 20조 원 안팎의 호조를 지속했다. 특히, 정부가 민간에 지원한 할인행사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거래액이 1년 전과 비교해 2000억 원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늘어났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필품 가격 비교가 용이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수요가 이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수 쪽의 오프라인 부분이 다소 부진하지만, 온라인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라며 “생필품 위주로 온라인이 가격 비교 등이 용이한 영향으로 대부분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동월대비 26.2%(2058억 원) 증가했다.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할인행사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음식료품(18.0%, 4242억 원)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14.7%, 2683억 원)의 거래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가방(-10.3%), 신발(-2.3%) 등 비필수 소비재 거래액은 1년 전보다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미하지만 가방, 신발 쪽이 조금 줄었다”며 “신학기인 3월이 지나고 4월부터는 실질 구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꼭 생필품이 아닌 부분은 조금 줄일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0%), 음식서비스(11.2%), 여행 및 교통서비스(10.6%)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1.9%(1조5753억 원) 증가한 14조 8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전년 대비 1.0%포인트(p) 증가한 74.8%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 중에서 가방(-9.2%) 등이 줄었지만 음·식료품(23.0%), 여행 및 교통서비스(14.1%) 등에서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7%)가 가장 높았고, 음·식료품(14.4%)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9.9%)가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6%)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애완용품(83.0%), 아동 유아용품(81.4%) 순이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협 “반디 R&D 세액공제 연장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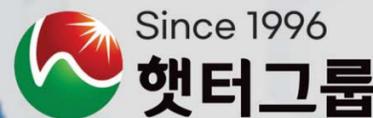
규제 애로 116건 건의문 정부에 전달

한국무협협회는 지난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협업계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발굴한 통상·협력, 물류·통관을 비롯한 총 8개 분야 무협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116건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협은 건의문에서 각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소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통한 국내 생산 재정보조 지원 ▲해외자원개발

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항목 신설 ▲해외자원개발 배당 비과세 대상 범인에 대한 지분율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및 공제율 상향과 직접 보조금 지원 ▲예멘 발 흥해 물류 차질 및 파나마 운하 가뭄이 야기한 북미·유럽 항로 선복 부족과 운임 급등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 확대 ▲국내 KC·의료기기 인증과 해외 주요 인증과의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최근 수입허가 품목 및 선적 전 검사 확대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한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부 통상협력 강화 등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성비 좋은 너로 정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무료 창업 교육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 일정

A반 : 2024년 6월 3, 1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9시 (2일간)
 B반 : 2024년 6월 13, 20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2일간)

교육 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 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 목표

실전교육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성공적인 창업 배출

수강 혜택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창업교육자료** 증정

수강 방법

1. 대한홍삼 홈페이지 > 상담신청에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2. 문자 or 이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송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법인폰 : 010-4480-0045 / E-mail : haettercs@naver.com

교육 주관



교육 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CEO 35년 경력)



교육 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11번 또는 7호선 9번 출구에서 600m

교육 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고객센터 010-4480-0045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전남도, 1946억 규모 보험료로 농업인 생명·재산 지킨다

벼 등 73개 품목, 14.9만ha 지원
농가 부담 20% → 10%로 낮춰
농업인 안전보험, 13.1만명 대상



농작물 재해.

전남도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2000억원에 육박하는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에 걸쳐 194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업정책보험료 지원사업비는 보조 1723억 원, 자기부담 22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4억 원 늘었다. 상품별 보험료 지원율은 80%에서 최대 100%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대상은 벼 등 73개 품목, 14만9000ha다. 2022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가 부

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총사업비는 166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상해, 사망 등 사고시 실비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올해 153억 원 규모로 1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형 상품의 경우 보험료는 9만

8000원으로 농가는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사업비 133억 원 규모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이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 호우, 저온 등 7번의 재해와 농작업 중 사고 등으로 전체 1773억원의 보험금이 농가에 지

급됐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총 1497억원(보험료 1765억 원의 84%)을 지급했다. 지난해 시·도별 가입면적은 전남이 14만2251ha, 충남이 11만4980ha, 전북이 11만1213ha, 경북이 8만3415ha, 경남이 5만8621ha 순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200억원(보험료 170억원의 118%), 농기계 종합보험은 76억원(보험료 141억원의 54%)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영농 재기와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됐다.

김영록 지사는 3일 “올해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만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전방위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울산시

인니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울산시는 아세안 시장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인도네시아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출국해 오는 7일 귀국하는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현지 한국산 수입 시장 점유율과 상담 주선 가능성 평가를 통해 ㈜글로벌엔지니어링, 씨드포닉스, 엔트라㈜ 등 울산지역 중소기업 8개사가 선정됐다.

선박용 배관 등 선박 부품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증류 공정 설계, 폐수 회수 및 해수 담수화 장치 설계, 내진 자재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구성됐다.

/울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특색 넘치는 ‘황오재즈페스타’

경주시가 경주문화관1918광장에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황오재즈페스타 vol.3’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황오동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도입해 관광·산권 활성화를 물론 경주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황오재즈페스타에서는 지역 전문 재즈뮤지션의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관람객들을 위해 로컬버스, 먹거리버스 등을 마련해 페스타 분위기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경남도

추천상품에 175개 품목 지정

경남도는 2024년 상반기 ‘경상남도 추천상품(QC)’으로 5개 분야 175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71개, 수산물 56개, 축산물 23개, 공산품 8개, 공예품 17개 품목이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산·공예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1995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지정하며,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심의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사이소, 구독경제 포인트 판매

경북도는 농특산물 소포몰 ‘사이소’를 통해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는 구독경제 포인트를 상품소진 시까지 판매한다.

‘사이소’에서 7만원 상당의 구독경제 포인트 상품을 구매하면 3개월간 매월 1만 포인트를 지급해 총 10만 포인트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으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사이소’에서도 2022년부터 정기배송, 꾸러미 상품 등 구독경제 상품 발굴 및 구독경제관을 개설했다.

지자체 최초로 포인트 구독경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2022년에는 8억원, 2023년은 전년 대비 22% 상승한 9억 8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완도군, 8년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산들바람 진산권역, 70억 사업비 확보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8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5월 31일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사업 선정 결과,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부문에 완도군의 ‘산들바람 진산권역(소안면 진산리)’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공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8년도 보길권역을 시작으로 약산, 충동, 고금, 금당, 금빛안, 봉선권역에 이어 진산권역까지 선정되어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산들바람 진산권역’의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신축, 활력 쉽터 조성, 노후 경로당 및 부녀회관 리모델링, 진산 해변공원 조성 사업 등이다. 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어인 등 외부 인구 유입, 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8년 연속 선정되었다. 사진은 공모에 선정된 소안면 진산리 전경. /완도군

신우철 완도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8년 연속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이 이뤄낸 큰 결실이다”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광주시, 공공건축물 기능성·편리성 강화

종합개선 대책 수립해 운영

광주시가 공공건축물 기획단계부터 기능성을 강화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기능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의 강화하기 위해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건립 절차는 입지 선정, 사업규모 및 사업비 결정, 발주방식 및 공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설계·시공, 유지관리로 구분된다.

광주시는 공공건축물의 심미성과 기능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종합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건축기획 단계부터 종합건설본부가 참여해 적정 사업비, 설계 및 공사 기간의 적정성, 발주 방식 등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

또 공공건축물 건립의 설계공모 심사 방식도 토론을 통한 투표제에서 투표제와 채점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능성 부문의 배점이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 수립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추진 시기에 따라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종합개선 대책으로 예술성이 높고 기능성 있는 건축물을 건립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수영 기자

포항시, 우수 스타트업 해외판로 지원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 CES서 최고혁신상 수상한 10개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투자유치 진행

포항시는 지난 1일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제6회 미래 신산업 국제무역상담회의 하나로 CES에 참여한 10개 기업의 우수한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하는 ‘경북·포항 스타트업 글로벌쇼’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경상북도,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참가한 우수 성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전에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ES 참여 기업

중에서 2024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미드바르, 플로우스튜디오(주) 등 10개의 유망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개 기업들은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에 맞춰 5월 31일부터 미국·캐나다·일본·인도 등 해외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1일 현장에서는 원소프트다임 100만 불, 투엔 10억 투자유치 등 총 5개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빛축제에 참여한 해외도시들에게 포항시의 우수한 ICT 경쟁력을 선보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글로벌 성장 능력을 가진 지역의 우수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시, 다자녀·대중교통 추가 캐시백 제공

동백전 신규사업 추진

부산시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수령자와 월 3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동백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 수령자와 동백 패스로 월 3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동백전 규약(QR)로 결제하면, 오는 8월

부터 기본 캐시백에 5% 추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달부터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2% 추가된 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동백몰은 이달부터, 착한가격업소는 오는 8월부터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5%의 추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시는 외국인 전용 동백전 앱과 카드(BUSAN PAY)를 출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상, 베트남 공장동 2곳 증설... 'K식품' 글로벌 전초기지

지난해 베트남 매출 2000억 이상 북부 하이즈영성·흥옌성에 완공 300억 투자, 생산능력 2배 확대 스프링롤·바인바오 등 간편식 생산



종합식품기업대상이 글로벌 생산역량 확대를 통해 'K-푸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

대상은 자회사인 대상베트남과 대상득비엣이 각각 베트남 북부 하이즈영성과 흥옌성에 제2공장을 완공했다고 3일 밝혔다.

1994년 베트남 정부의 투자 허가를 받아 미원 베트남(현 대상베트남)을 설립한 대상은 1995년 하노이시 인근 벵찌에 공장을 설립해 본격적인 MSG 생산·판매를 시작했다. 2002년 이후부터는 MSG 이외에도 국물용 복합조미료, 튀김가루, 칠리소스, 간장 등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며 현지 식품사업을 선도하는 종합식품기



대상베트남 하이즈영 공장(왼쪽 제1공장, 오른쪽 제2공장) /대상

업을 지향하고 있다.

2016년 9월, 베트남 현지 육가공업체 '득비엣푸드(Duc Viet Foods, 현 대상득비엣)'를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베트남 육가공 시장에 진출했다. 득비엣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품질 제품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고, 냉장·냉동 제품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대 중이다.

베트남은 대상의 글로벌 사업 핵심 국

가로, 지난해에만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6년 전인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한 수치로, 최근 K-푸드 열풍에 힘입은 소비자 수요 증가 영향이 큰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대상의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프드(O'food)의 '김'은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1위에 등극했고 현지 채소를 활용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

는 편의형 김치양념을 비롯해 간편식 떡볶이, 핫도그 등 K-간식도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대상은 베트남 사업 확대를 위해 대상베트남의 '하이즈영 공장'과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에 총 300억원 수준의 투자를 단행하고 각각 신규 공장동 1개씩을 증설해 연간 생산능력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 하이즈영 공장은 2020년 대상이 약 15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베트남 식품사업 확대의 전초기지다.

대상은 현재 베트남에 하이즈영(상은 식품), 흥옌(신선, 육가공), 벵찌(발효조미료 미원), 띠이닝(물엿, 타피오카 전분) 등 총 4개 공장을 운영중이다.

이번 신규 투자로 대상베트남은 하이즈영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CAPA)을 기존 대비 40% 확대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라인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상온 간편식 제조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다.

대상득비엣의 흥옌 공장 역시 이번 증설로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온소시지, 프로즌볼 등 육가공 제품과 함께 신규 공장에서는 베트남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스프링롤, 바인바오와 같은 간편식 제품을 생산한다. 또한 김치 생산라인도 새롭게 구축했다.

대상은 증가 김치의 베트남 현지 생산을 통해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프드를 앞세워 간편식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적극적으로 키워갈 계획이다.

먼저 상온 간편식으로 스프링롤 3종을 선보인다. 최근 베트남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서양식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현지인들이 아침식사로 선호하는 베트남식 호빵인 냉장 '바인바오'는 불고기맛 등 3종으로 출시한다. 현지 업체 제품들과는 다른 색다른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냉동 스프링롤은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간식으로 피자 맛 등 오프드만의 현지 특화 제품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맛 세계에 알렸다

롯데GRS, 식품 박람회 타이팩스 참가 관람객 시식회 열고 경품증정 행사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100건 이상 상담



롯데GRS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동남아 최대 식품로 무역 박람회인 THAIFEX의 롯데리아 홍보관 동남아 현지 관람객들이 시식회 및 행사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롯데GRS

롯데GRS는 태국에서 개최한 태국 방콕 식품 박람회(THAIFEX, 이하 타이팩스)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타이팩스 박람회는 동남아 최대 식품로 무역 박람회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였으며, 약 303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133개국 약 8만명이 방문했다.

롯데GRS는 지난해 7월 40여개국 100개 업체가 참가하고 ASEAN 지역 최대 프랜차이즈 박람회인 TFBO 2023 박람회에 이어 올해는 더 큰 규모의 박람회 참가함으로써 동남아 신규 진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GRS는 이번 타이팩스에서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의 대표 매

뉴인 '불고기버거'와 K-버거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전주비빔라이스버거'와 함께 베트남에서의 치킨에 대한 높은 소비 문화를 적용한 '강정치킨'을 관람객 대상으로 시식회를 운영하고 경품증정 행사도 함께 운영했다.

또한 동남아국 신규 진출을 위해 박람회 운영 기간 중 동남아 신규 파트너사 모색을 위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상담 운영으로 총 100건 이상의 상담 운영 및 시식회 및 이벤트에 약 1만여명이 롯데리아 전시관을 체험했다.

롯데GRS는 지난해와 올해 미국과 태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연속 참가하며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의 진출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2023 APAC 올해의 보틀러'에 선정됐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 'APAC 올해의 보틀러' 선정

1976년 펩시코와 파트너십 첫 성과

롯데칠성음료가 '펩시코(Pepsico)'의 글로벌 음료 보틀링 파트너 중 지난해 가장 탁월한 성과를 달성해 '2023 APAC 올해의 보틀러'에 선정됐다. 펩시코는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인 IFC(국제 프랜차이즈 컨벤션) 행사를 통해 매년 올해의 보틀러를 선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 약 300곳 이상의 보틀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고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5월 2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IFC 2024' 행사에서 롯데칠성음료 박윤기 대표이사, 펩시코 라몬 라구아르타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보

틀링 비즈니스를 하는 전 세계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선정되는 올해의 보틀러 중 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지역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롯데칠성음료가 올해의 보틀러로 선정된 것은 지난 1976년 펩시코와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 처음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976년부터 펩시코와 49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해오고 있다. 1976년 당시에도 대표 탄산음료 브랜드 '칠성사이다'와 전국에 걸친 탄탄한 영업망으로 국내 음료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롯데칠성음료와 글로벌 브랜드 파워, 선진화된 생산기술 및 영업 운영 노하우를 가진 펩시코와의 협업은 큰 주목을 받았다. /신원선 기자

오뚜기, 마라 라면 브랜드 '마술랭' 론칭

'마라탕면' 용기면 첫 선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마라 열풍이 식품업계로 번지면서 라면에 마라맛을 접목한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종합식품기업 오뚜기가 마라 라면 브랜드 '마술랭' 론칭과 함께 '마라탕면' 용기면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해 10월 출시해 누적 판매량 900만 개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캡누들 마라탕'에 이어, 다양한 유형의 마라 라면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브랜드를 론칭했다고 설명했다.

'마술랭'은 오뚜기의 짜장라면 브랜드 '짜술랭'에 이은 마라맛을 대표하는 신규 브랜드로, '마라탕면'과 '마라상귀'까지 2가지 용기면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오는 6월 14일에 먼저 출시되는 '마술

랭 마라탕면'은 얼얼한 2단계 맵기의 마라탕으로 '푸주'와 '두부피' 건더기를 넣어 전문점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고, 마라탕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품 패키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응용 레시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호에 맞게 별첨 유성소프의 양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부재료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신원선 기자



SPC '던킨' 30주년 신제품 3종 출시 이벤트

SPC그룹의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브랜드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담은 신제품을 출시하고, 인공지능(AI) 뮤직테크 기업과 협업한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던킨이 30주년을 기념해 선보이는 신제품은 '라이스 클레이즈드', '인절미 후로스티드', '30th 해피 버스데이' 도넛 등 3종이다.

먼저, 국내 도입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가장 한국적인 원료인 우리 쌀을 활용한 도넛인 '라이스 클레이즈드'와 '인절미 후로스티드'를 선보였다. SPC 그룹의 독자적인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특허 토종 효모(SPC-SNU 70-1)와 유산균(SPC-SNU 70-2~4)을 활용한 발효종 '삼미종'을 사용해 부드러운 풍미를 끌어 올렸다. /신원선 기자

오비맥주 카스, 여름 TV광고 '온에어'

오비맥주 카스가 여름 캠페인 '하나가 되는 소리 짠!'을 주제로 한 신규 TV 광고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카스의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 시작을 알리는 이번 광고 영상에서는 청춘을 상징하는 대학 응원단을 소재로 열정적인 응원의 에너지를 담았다.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함께 맥주를 부딪칠 때 나는 경쾌한 소리인 '짠'을 통해 서로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순간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했다.

영상은 응원단 모임에 처음 참여해 혼자 앉아 있는 주인공의 어색한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내 단원이 다가와 경쾌하게 잔을 부딪치면서 '설렘이 시작되는 소리'라는 내레이션으로 분위기가 전환된다.

이번 여름 캠페인 광고 영상은 공중파, 케이블 등 TV 채널과 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방영된다. /신원선 기자

쿠팡, PB생산 중소기업에 유통·판로 다각도 지원

자회사 씨피엘비 컨설팅 중소기업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늘어
중소 새로운 '성장 모멘텀' 작용
연매출 10배 넘게 성장한 사례도

쿠팡의 PB(자체브랜드)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에서부터 제조 공정 컨설팅까지 지원함으로써 PB생산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쿠팡에 따르면 씨피엘비는 PB 제조사가 제품 개발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통 및 판로 확대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 결과, 씨피엘비가 컨설팅하고 판로를 확대한 중소기업들은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3배 늘었다.

씨피엘비는 품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검품 기준, 이물·해



박진성 곰소천년의젓갈영어조합법인 대표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쿠팡

충 관리법, 포장재 파손 예방책 등 전문적인 신선식품 품질관리 노하우도 공유한다.

이렇게 탄생한 PB제품은 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베스트 셀러로 인기를 누리며 중소 제조사들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로를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550곳으로 늘어난 배경이기도 하다.

기존 재래식 생산 방식을 벗어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곰소천년의젓갈 영어조합법인'은 품질 및 생산력 개선으로 매년 새로운 성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북 부안군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 기업 곰소천년의젓갈은 2020년 PB 납품을 시작하고 매년 30% 이상 성장하며 2018년 연매출 5억원에서 2023년 52억원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고용도 4명에서 14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진성 곰소천년의젓갈 대표는 "쿠팡과 거래를 시작하고 스마트팩토리 등 설비를 도입하는 등 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하고 있다"며 "쿠팡 PB

상품을 제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았다"고 비결을 밝혔다.

쿠팡의 PB사업 성장은 중소 제조사들의 품질과 상품개발에 대한 오랜 투자가 기반이다.

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 제조사들의 생산과 품질 시스템, 고품질의 PB상품 개발 등에 투자하고,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의 PB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철학을 고수한 덕분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까다로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파트너사들 덕분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우수한 중소 제조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유한양행

합성신약부문에
최영기 전무 영입



유한양행이 중앙연구소 부장 겸 합성신약부장으로 최영기 전무(사진)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무는 서울대학교 제약학 석사를 수료하고 오리건 주립대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2005년 베링거인겔하임에서 저분자 약물 발견업무의 수석에 담당하던 뒤 포마테라퓨틱스에서 화학 기술 활성화 업무의 수석을 담당했으며 아일랜드 소재의 바이오제약사 알케미스에서 발견 연구 디렉터 업무의 임원으로 역임했다.

여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20년에 가까운 경력을 지낸 최 전무의 합류로 유한양행은 연구개발(R&D)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베이재팬, '큐텐대학'으로 K셀러에 판매노하우 등 제공

큐텐재팬 입점 셀러 사용 가능
K셀러 매출상승에 도움 취지
시청수 탑 10위 중 9개, 韓 버전

이베이재팬이 지난달 일본 e커머스 판매 노하우와 성공사례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 '큐텐 대학' 한국판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에서 K제품 열풍이 계속되면서 일본 e커머스 진출을 희망하는 K셀러가 많아지고 있어,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매출 상승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큐텐재팬 입점 셀러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무료로 e커머스 판매 노하우와 정보 등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초보 셀러부터 중·소규모 셀러, 빅브랜드 셀러 누구나 각자의 경험과 목적에 맞춰 판매 방법, 노하우, 판매자 성공 스토리, 큐텐재팬 주요 프로모션 이용 방

법, 라이브방송 및 세미나 관련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큐텐 대학 콘텐츠는 이베이재팬이 운영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 홈페이지 상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큐텐 대학 메인 페이지에서 한국어 버전을 클릭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는 이메일과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베이재팬은 한국에서의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는 등 K셀러들의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판을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 90일간 동영상 시청수 탑 10위 중 9개가 한국어 버전으로 조사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온라인몰에서 효과적으로 내 상품 판매하는 방법'을 비롯해 '큐텐재팬 매니저들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일본 역직구 꿀팁', '일본 큐텐 역직구! 지금 당장 매출 향상시키는 법' 등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한국P&G, '모든 날들의 챔피언' 기획전

한국P&G가 3일 서울 광진구 이마트 자양점에서 한국P&G '모든 날들의 챔피언' 기획전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P&G는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이마트 매장에서 '모든 날들의 챔피언'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 국내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한국P&G가 3일 서울 광진구 이마트 자양점에서 한국P&G '모든 날들의 챔피언' 기획전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P&G는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이마트 매장에서 '모든 날들의 챔피언' 기획전을 진행한다. 기획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매장에서는 5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상품권, 국내 5성급 호텔 숙박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한국P&G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비전 공유 심포지엄

건강보험 확대 1주년 기념

JW중외제약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건강보험 확대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기전의 혁신신약이다.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됐다.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뿐만 아니라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출혈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A형 혈우병 표준치료제'라는 헴리브라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혈우병 관련 국내 의료진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날인 지난 1일에는 일본 나라의과대학 소아혈액종양학과 미도

리시마 교수가 예방요법으로 헴리브라를 장기간 투약할 경우 관절 건강에 끼치는 이점과 운동 시 출혈관리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시마 교수는 현재 헴리브라 예방요법의 관절 건강 유지 및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AOZORA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 중간 결과에 따르면 헴리브라 투약 후 145주차에 '활막비대증'과 '혈우병 관절건강지표(HJHS)'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촌세브란스병원 한정우 교수는 세계혈우연맹이 권고하는 환자별 치료 가이드라인과 헴리브라 투여 중 수술 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했다.

2일에는 인하대병원 박정아 교수와 화순전남대병원 백희조 교수가 연자로 나서 헴리브라 국내 투여 환자 대상 효과와 안전성, 삶의 질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JW중외제약은 헴리브라가 국내 A형 혈우병 표준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SC, CHMP서
변경허가 승인권고

셀트리온은 유럽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램시마SC'의 투여 요법 추가 및 용량 증량 허용을 위한 변경 허가 신청에 '승인권' 의견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램시마SC는 기존에 정맥주사(IV)제형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인플릭시맵'을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처음 피하주사(SC) 형태로 개발한 제품으로, 미국에서는 '집젠트라'라는 제품명으로 공급되고 있다. 장기간 처방되며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인플릭시맵 성분을 보다 간편히 투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연 매출 약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크론병(CD) 및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상을 토대로 램시마SC의 투여 요법 추가 및 용량 증량 허용에 대한 CHMP의 승인 권고를 획득했다. /이세경 기자

대웅제약

'엔블로드 워크' 성료

대웅제약이 지난해 5월 출시한 당뇨병 신약 엔블로드 1주년 기념 행사 '엔블로드 워크'를 국내 의료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18~24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내분비내과를 비롯한 다양한 진료과 의료진 2만여 명이 새롭게 발표된 엔블로드와 당뇨병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의료 현장에서의 특징점을 공유했다.

엔블로드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의료진들은 ▲엔블로드 52주 연장연구 ▲엔블로드-다과글리플로진 스위칭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이세경 기자

유한양행, 구직 청년과 원데이 기업투어

고용부 주관 일자리 수요데이 프로그램

유한양행은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프로그램으로 원데이 기업투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서 2024년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에 열리는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기업투어는 지난 5월 31일 본사 4층 대연실에서 모여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약

200명 규모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유한양행의 기업 문화탐방, 약품 및 해외영업 직무 소개, 현직자와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 유일한기념관 및 메모리얼룸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유한양행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올해로 창립 98주년을 맞는 유한양행은 글로벌톱50을 목표로 각 사업부문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및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2024.06.19(수)

14:00~17:00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행사개요

- ▶ 행사명 2024 푸드이노베이션 포럼
- ▶ 주제 푸드테크, 세상을 바꾸는 선한 힘
- ▶ 일시 2024년 6월 19일(수) 14:00~17:00
- ▶ 장소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후원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1만원)
- ▶ 사전접수 2024 푸드이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꿈이룸 장학증서' 수여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 서울 사옥에서 2024년도 KSD 꿈이룸 장학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에는 총 161명의 장학생에게 약 4억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 이사장이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교촌에프앤비,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돕는다
교촌에프앤비가 지난달 31일 초록우산 그린아고라에서 '청년의 꿈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교촌은 50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1억2500만원을 전달하고 안정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응원했다. 강창동 교촌에프앤비(주) 커뮤니케이션 부문장(가운데)과 여인미 초록우산 경인권역총괄 본부장(오른쪽)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촌에프앤비



SC제일은행-여번협, 여성 기업가 금융 지원 맞손
SC제일은행은 지난달 30일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기업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보증서담보대출시 1%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김단주 SC제일은행 중소기업금융부장(왼쪽부터), 비키 영 SC그룹 헤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휴롬, '우리동네 옥상텃밭 채소놀이터' 첫 행사
휴롬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옥상텃밭 채소놀이터'의 첫 행사로 '어린이 요리교실'을 개최했다. 3일 휴롬에 따르면 어린이 요리교실은 텃밭 채소과일 수확 후 붉은색 채소과일을 주제로 먹거리 영양 교육, 요리 만들기, CCA 착즙주스 만들기 등 어린이들이 채소과일에 대해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며졌다. /휴롬

폴리텍대 “미래의 나 그려보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미래 직업은 무엇일까. 한국폴리텍대학은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회에는 만18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작품 접수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전자 “우리의 미래’ 함께 지켜야”

2011년부터 'LG 희망스크린' 운영 '세계 환경의 날' 영상 제작·상영

LG전자는 현지시각 31일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의 옥외전광판에서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 해의 주요 거점 지역 전광판에서 국제기구나 NGO의 공익 영상을 상영해주는 'LG 희망스크린(LG Hope Screen)'의 일환이다.

이번 영상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해 '우리의 땅, 우리의 미래(Our Land, Our Future)'를 주제로 제작한 것이다.

LG전자는 지난 2011년부터 'LG 희망스크린'을 운영하며 세계 곳곳



LG전자가 'LG 희망스크린'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 전광판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작한 '세계 환경의 날' 캠페인 영상을 상영한다. 사진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영상을 상영 중인 모습. /LG전자

에서 ESG 경영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구의 날을 맞아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눈표범'의 역

동적 이미지를 3D로 구현한 'LG와 함께하는 위기 동물 보호 캠페인(The LG Endangered Species Series)' 영상을 공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효성, 참전용사 예우 개선 등 호국보훈 활동 활발

조흥제 창업주 산업보국 유지 계승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지속 후원

효성이 지난 2012년부터 나라사랑 보금자리 후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는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의 복지와 예우 증진을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효성은 충남 계룡시 육군분부를 찾아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효성의 후원금은 참전용사 총 14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100여명의 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육군분부를 중심



효성이 3일 육군분부를 찾아 참전 용사를 위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 신은봉 육군 인사사령관 /효성

으로 민·관·군이 참여해 생활이 어려운 참전 용사의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다. 또한 참전용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년간

주택 임대료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튀르키예의 6·25 참전용사 6가구에 대한 보금자리 신축 사업도 지원한다.

작년에는 태국의 참전용사 3가구를 포함해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 총 7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으며, 87가구가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았다.

회사는 조흥제 효성 창업주의 산업보국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호국보훈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남부보훈지청 참전 유공자를 위해 쇠고기 죽, 사골곰탕 등 사랑의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기중앙회, 대·중소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접수

삼성전자 협력... 190억 지원 예정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레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정부의 고도화 집중 지원 및 민간·지역 주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조 등에 따라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자체 연계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진행된다. 총 190억원 규모로 19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고도화는 생산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제어가 가능한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이를 위해 총 110여개사에 최대 1억5000만원씩 지원한다.

참여기업에게는 ▲삼성전자현직 전문가(200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6~8주업체 상주 근무)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엑스포 참가 등의 후속 연계사업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bada@

건국대, 신입 총장에 원종필 교수 선임

건국대학교 제22대 신입 총장에 원종필 교수(59, 사회환경공학과·사진)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지난 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교수 대표와 학생 대표, 직원 대표, 사회 각계 인사 등 총 68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자 선정위원회가 투표를 통해 원종필 교수를 제22대 신입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원종필 선임 총



장은 오는 9월 1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원종필 선임 총장은 건국대 농공학과에서 학사를 마친 후, 미국 미주리대와 미시간주립대에서 구조공학 석사, 박사를 받았다. 삼성물산을 거쳐 199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며 생명환경

과학대학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경영기획국장 등 학내 보직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종필 선임 총장은 "건국대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미래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

동서식품 '멘토링 클래스' 운영

동서식품이 '제17회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의 첫 번째 부대행사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온라인 문학 창작 강의, '멘토링 클래스'를 진행한다 고 3일 밝혔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멘토링 클래스는 국내 유명 작가들이 문학상의 4개 응모 분야별(시·소설·수필·아동문학)로 글쓰기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창작 노하우를 전달한다.

멘토링 클래스는 동서문학상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10시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중진공 'KSC'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2024년 K-스타트업센터(KSC) 거점형'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3일 중진공에 따르면 K-스타트업센터(KSC)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현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국(시애틀) ▲프랑스(파리)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일본(도쿄)에 총 5개 거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국내의 투자유치 실적 또는 최근 3년 이내 현지 매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서류심사와 현지거점평가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김승호 기자

에어부산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국내 유일 '매우 우수'

에어부산이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에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전 부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평가 항목 4개 부문인 ▲운항신뢰성 ▲항공교통이용자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전 부문 A 등급 이상을 받은 것은 국내 항공사 중 에어부산이 유일하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신한투자증권 ◇총괄대표 △정용욱 자산관리총괄 ◇본부장 △유세종 FICC 운용본부
- ◆동양생명 ◇임원 승진 △디지털본부 장 상무 이준희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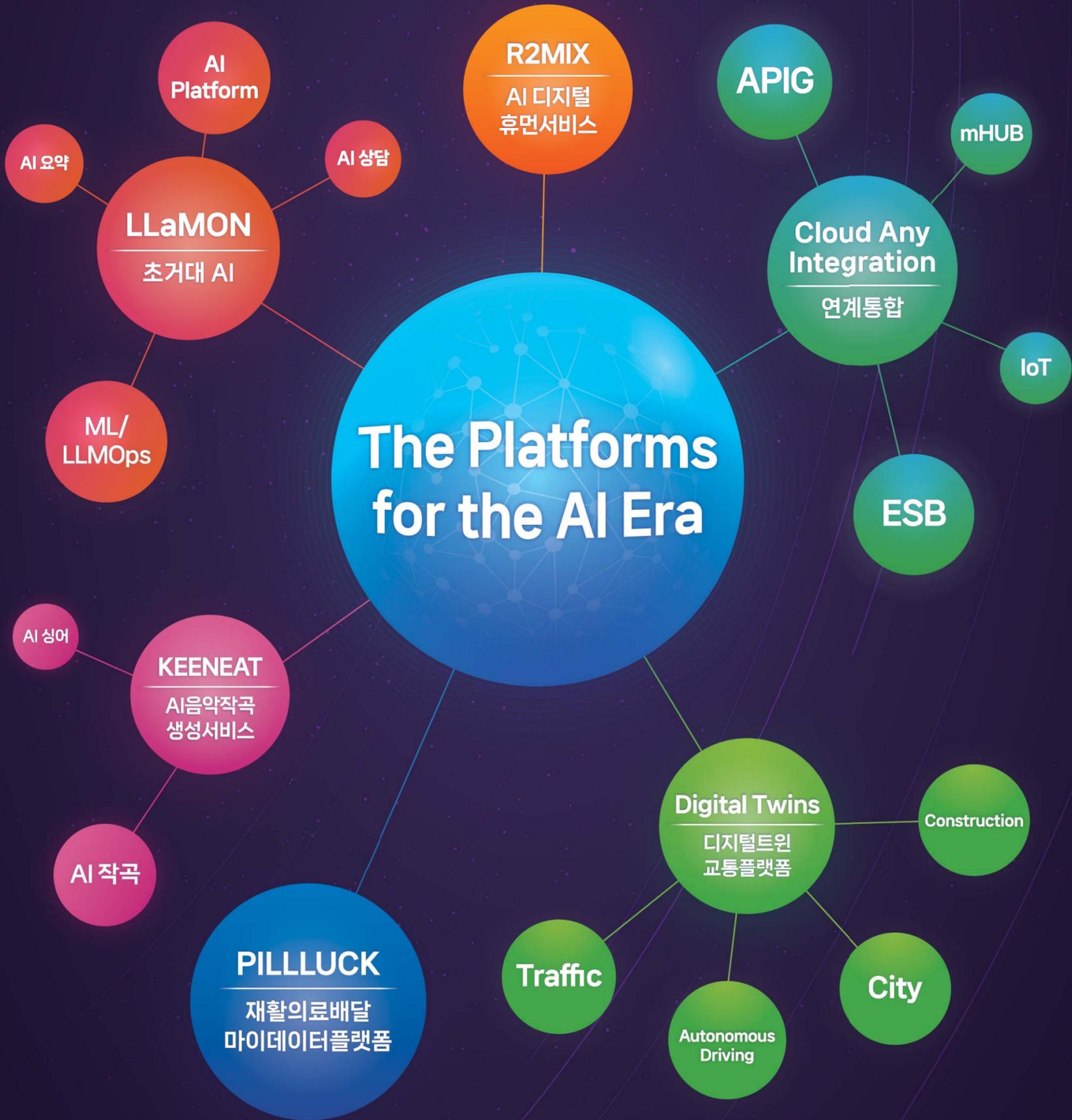
▲최태경씨 별세, 백정자씨 남편상, 소영(파이낸셜뉴스 교열팀 부장), 하영, 시영씨(우신운수 사원) 부친상=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 02-2258-5940.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커피 이야기



연민엽의
푸드톡

커피는 전 세계에서 매일 20억잔 이상 소비되고 있다. 소비자 조사기관인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52잔 대비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의 생두를 볶은 후 곱게 갈아서(분쇄)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은 아랍권에서 시작되었다. 아랍커피는 중동을 비롯한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700년경 프랑스에서 볶은 커피 입자를 천으로 만든 봉지에 넣고 물에 담구는 방법을 채택하여 커피입자와 물을 분리함으로써 커피 알갱이가 씹히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후 1750년경에 드립포트가 개발되었다. 볶은 커피입자를 넣고 위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볶은 커피입자를 통과한 드립액이 별도의 공간에 고이도록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에스프레소 추출법이 고안되었다. 에스프레소 추출법은 끓는 물이 중앙에 설치된 관을 타고 올라와 바닥에 깔아놓은 볶은 커피 입자에 도

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플런저 포트법은 볶은커피 입자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플런저를 이용해 커피를 바닥까지 눌러서 물을 압출하는 방법이다.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는 1855년 파리 박람회에 등장했다. 에스프레소는 곱게 빻은 원두에 고온, 고압으로 소량의 물을 투과시켜 추출해 데미타스컵에 담은 커피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물을 투과시키는 게 아니라 갈때기에 걸러서 추출하면 드립 커피가 된다.

커피를 빠르게 추출하는 방법은 높은 압력을 이용해 강제로 물을 커피 입자에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압력을 높이면 커피공에 함유되어 있던 지방입자의 용출이 용이해져서 부드럽고 풍미가 상승한다.

찬물로 내린(추출) 커피를 콜드브루라고 하는데 물의 온도가 낮으면 커피가 빠르게 우려나지 않기 때문에 한방울씩 떨어뜨리는 점적식은 8시간 이상, 침출식은 12~24시간 이상의 긴 추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방식에 비해 보관 기간이 길고 시음이 용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어 풍미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다.

커피공은 190~220℃의 온도에서 90초~15분 동안 볶는다. 콩의 온도가 물의 끓는점 가까이 도달하면 세포 안에 들어 있던 소량의 수분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콩의

부피가 1.5배정도 팽창한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단백질, 당, 석탄산 물질, 그 밖의 성분이 분자크기의 조각으로 파괴되면서 메일라드 반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색상인 갈색으로 변하고 아로마가 생성된다. 160℃에 도달하면 세포 구조가 파괴되면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200℃에서 급격히 증가한다. 로스팅을 계속하면 손상된 세포에서 커피공 표면으로 커피의 유지(지방)성분이 용출되면서 표면이 반들거리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커피는 끓이는 과정에서 홍차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추출된다. 일반적인 커피 한 잔에는 홍차에 들어 있는 20~50mg보다 많은 50~10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다.

커피는 오래 추출할수록 더 많은 카페인이 배출된다. 에스프레소 방식은 뜨거운 물을 고압으로 원두 가루에 통과시켜, 카페인을 많이 배출하지 않으면서 깊은 풍미의 휘발성 유지성분을 포집한다.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정신활성물질이다. 카페인 효과는 적당한 양(50~300mg, 1일 권장 제한량은 400mg)을 섭취했을 각성효과와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다량을 섭취하면 불안증과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섭취량 조절을 권장한다. /(재)전남바이오토티즌 식품산업연구센터장

오늘의 운세 6월 4일 (금 4월 28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재물은 사람 사이 격차를 지게 만든다. 48년생 오늘 일기를 써보시라. 60년생 비벌 언덕이 있으면 좋겠다. 72년생 세속적이 부(富)라 할지라도 시작은 하나부터 출발이다. 84년생 물실희기(勿失好機)가 있으니 기회가 있기 마련.



37년생 사람은 누구나 돈이 필요하니 벌 수 있을 때 벌자. 49년생 사업의 협조자를 만난다. 61년생 성공한 사람을 보면 독서를 많이 한다. 73년생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85년생 세상의 이치는 제때 제자리가 있는 법.



38년생 감기를 조심해야. 50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해야. 62년생 만우인력의 법칙은 사람 관계에도 있다. 74년생 좋은 기회가 오리라는 확신으로 실력을 키워라. 86년생 사람은 갑자기 친해지면 반드시 일이 발생.



39년생 능력이 지나치다 싶으면 조용히 해야. 51년생 통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자. 63년생 사돈 앞에서 남편을 조롱하려 하지 마라. 75년생 수명처럼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못한다. 87년생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소나무와 같다.



40년생 초상집 갈 일이 생긴다. 52년생 부모 위기라도 동요하지 말고 풀어나가라. 64년생 누군가는 부자의 고뇌를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는가. 76년생 부자가 되기 위해 재충전이 필요한 날이다. 88년생 문학은 마른 정서를 순화시키니 책을 보자.



41년생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53년생 금전이 결핍될 때 가정을 피폐해지니 투자는 매우 주의. 65년생 시간은 금이오 귀중한 자산. 77년생 사랑할수록 신용의 성실성이 요구. 89년생 결실 없는 생활의 연속인 듯하니 유효하게 다시 시작.



42년생 친구를 만나서 내 자랑만 하고 나니 눈총이다. 54년생 삶은 내가 하고 편한 일은 타인에게로. 66년생 아내에게 침묵할 줄도 알아야. 78년생 천국에도 슬픔과 고통이 있을 터인데. 90년생 조직의 수장은 모범을 보여줘야 할 터.



43년생 늦 사랑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 55년생 이혼은 여권신장도 아니요. 자랑거리도 아닐 텐데. 67년생 전통시장에 가서 기분전환을 해보자. 79년생 남의 주장도 겸허히 들어야 인생사 순리다. 91년생 지금이라도 기술을 습득해보라.



44년생 되는 일이 없다면 집안에 풍수를 적용해서. 56년생 애사심을 갖자. 68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전진. 80년생 개성과 창조도 누군가의 것에서 모방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92년생 약처를 만난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가 되려는가.



45년생 사랑에는 질문이 따른다. 57년생 나만 말이 많으면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니 겸손한 청취를. 69년생 재물은 활기를 얻게 되니 도전하라. 81년생 이론만을 더 듣기보다 실천하도록. 93년생 평범함 속에 지혜가 있으니 자신을 갖도록.



46년생 가족은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58년생 어머니의 젖은 애정을 흡수하게 한다. 70년생 돈은 꽃이라면 경제력은 향기로운 열매. 82년생 무슨 행동이든지 제때 맞는 적시성이 있어야 할 것. 94년생 창업은 새 친구보다는 오랜 친구와 함께.



47년생 힘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한다. 59년생 일교차가 심해지면 감기몸살조심을. 71년생 시대에 불평불만 말고 감사해 해보라. 83년생 식탐은 아람 담지 못한 인생의 원리이다. 95년생 과학의 발전이 있으니 생명은 길어진다.

물거품 된 '한우법'에 망연자실 한우농가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한우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사료값 부담으로 생산비가 늘면서 한우 농가가 벼랑 끝에 몰렸지만 정부는 뚜렷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우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이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서 농가의 실망감만 커졌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한 법안이다.

현재 한우산업은 열악한 생산 환경에 놓여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소값 폭락으로 마리당 200만~3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되어 있어 더욱 암울하다.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어렵게 통과된 만큼 농가가 거는 기대감도 컸을 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우농가는 한가닥 희망마저 뺏히고 만 것이다. 한

우협회는 여야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정부는 겉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단기적인 한우 할인 판매 행사로는 농가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한우의 보존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한우법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한우농가 생산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장단기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tree6834@metrosoul.co.kr



김상희의四季
이별수

한 유명한 여자 탤런트와 연하 남자방송인의 재혼이 화제가 된 지 몇 그제 같은데 이혼 소식이다. 필자는 두 사람의 재혼이 화제가 되었을 때 남의 일이긴 하지만 저 두 사람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인들에게 얘기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생년월일을 맞춰보지 않아도 관상만으로도 예견이 어렵지 않았다. 그 얘기를 기억한 지인이 두 사람의 이혼이 발표되자마자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인생살이 중에 쉽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그중에서도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은 사랑의 아픔과 상실감에 빠진다.

가요 중의 대부분이 사랑 그것도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별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이별을 운운하기도 하고 사랑했기에 헤어진다라는 이별의 변을 얘기하기도 한다. 그 수많은 사랑의 이별 중 대표적인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비극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다. 한때 '가시나무새'로 알려진 미국드라마에서는 전도유망한 카톨릭사제가 아름다운 신도 아가씨와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었는데 이렇듯 사랑의 완성을 허용할 수 없는 금기의 관계는 더욱더 인간의 심연을 아프게 한다.

영원할 것만 같은 사랑도 그렇지 못하다는 데 아이러니가 있다. 정열이 뜨거울수록 원수로 헤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왜일까. 양철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 질량 총량의 법칙처럼 '정열 총량의 법칙'이라고 할까? 사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분야가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솔직하게 작동하는 '남녀상열지사' 쪽이다. 남자는 명조에 재성이 깨져있거나 여자는 관성이 혼잡할 경우 일부 종사가 어려운 경우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기의 열과 행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결합형스도쿠

컬러스도쿠110
중요스도쿠 120

6	3	9			7	2
2		8				
	1	7		4	2	5
	8			1	9	7
			9			
1	6	4			5	
3		7	5		2	9
				9		3
5	2			6	7	8

7	2	9	3	1	6		
1						5	
	1			6		2	
9					5	3	
6		5			1	2	
	5	2				9	
	9			8		7	
5						7	
7		6		9	2	5	8

8	1	2	9	6	7	3	9
6	9	9	6	7	1	2	8
9	7	6	2	8	9	1	6
6	2	9	8	1	6	7	9
1	8	7	6	2	9	9	1
2	6	1	9	2	9	8	6
7	9	2	7	9	1	8	6
7	9	2	1	8	9	6	2
2	8	1	9	6	6	7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4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3년간 녹지·힐링쉼터 50곳 조성 '매력 특별시' 만든다

서울시, 올해 예산 4075억 투입
폐·공가, 경작지 등 지역 특색반영
올해 22곳, 내년 15곳 등 순차조성

서울시가 다채로운 정원 녹지 공간과 힐링쉼터를 갖춘 매력 도시로 되살아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074억 6200만원을 투입해 시민의 일상 곳곳에 정원과 공원이 스며들 수 있게 녹지를 늘리고 공원 안에 책 쉼터와 같은 힐링 복합공간을 확대한다.

시는 '어딜 가든, 서울 가든(GARDEN·정원)' 실현을 목표로 '아름다움과 매력이 가득한 정원도시 구현', '산과 공원에서 즐기는 정원 여가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도시 관리'에 박차를 가한다.

우선 시는 생활 밀착형 공원 확충에 팔을 걷어붙인다. 거주지 인접 산자락 훼손지(폐·공가, 경작지) 등 지역별 특색을 반영해 테마가 있는 정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봉제산 책 쉼터 내부. /서울시

곳, 내년 15곳, 2026년 13곳에서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조성된 시 공원 약 95만㎡에 오는 2026년까지 쉼터와 매력가든을 만들고 훼손지를 복원하거나 건물(지장물)을 철거하는 내용이다.

금년 시는 중랑구 봉화산근린공원을 포함 22개소, 13만476㎡에 테마가 있는

공원을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정원문화(6개소): 전통·계절·야생화 등 주제 정원 조성 ▲산자락수목원(6개소): 훼손된 산림을 기존 식생과 연계 ▲액티비티 활동(7개소): 지역주민 요구(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 ▲어린이공간(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마련 ▲빈집 활용(1개소): 기존 공실 상태의 건축물

활용해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가족 단위의 다양해진 여가 수요를 반영해 공원 내에 아이와 양육자가 함께 즐기는 놀이공간도 마련한다.

현재 동남권 광나루한강공원(6000㎡)과 서남권 보라매공원(1만 5000㎡)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권역별 거점형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됐으며, 오는 2026년까지 동북권 북서울꿈의숲(8400㎡), 도심권 용산가족공원(3700㎡), 서북권 월드컵공원(5000㎡) 내외에 놀이시설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구 공원 18곳에는 '지붕 있는 바깥 놀이터' 콘셉트의 공원형 키즈카페가 만들어진다. 시는 벌집(성북), 중평(노원), 오목(양천), 매현시민의숲(서초), 잠실(송파), 어린이대공원(광진)을 포함 6곳에 조성을 완료했고 보라매(동작), 새샘(동대문), 강월 및 신트리(양천), 서서울호수(양천), 삼청(종로), 돌리쌍문(도봉), 쌍룡산(마포), 늘빛(강남), 당현천(노원), 신도(은평), 미래사

람(구로) 등 12곳에 공원형 키즈카페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연 속 힐링복합공간도 선보인다. 시는 시민들이 녹지에서 사계절 내 독서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책 쉼터를 설치한다. 이달 중에는 용마산근린공원(중랑), 10월엔 관음사지구(관악)와 초안산(도봉) 책 쉼터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후변화와 대도시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산불감시 및 예방·진화 체계를 가동해 도시 숲을 건강하게 관리한다.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서울에서는 연평균 11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피해 면적은 1만8000㎡에 이른다. 시는 올해 총 12억1000만원을 들여 산림지 153.23㎢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대비·진화·피해 조사에 나선다.

봄·가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 30개소를 운영하고, 산불 진화 드론·이동식 저수조 등 현대화된 장비를 활용해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리사 건강 위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서울시교육청, 관내 1002곳 대상
흡 방지기 부착 등 예산 3400억 투입

서울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위해 관내 1002개 급식실에 '흡 방지기' 부착 등 환기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27년까지 3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관내 4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토대로 마련됐다.

앞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하 기술지침)이 있었지만, 학교 급식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기존 학교 급식실에 적용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분석하고 기술지침의 내용을 보완·반영했다.

시교육청은 가이드라인에서 환기시설 개선 주요 3대 방안으로 ▲흡 방지기 부착 ▲미사용 후드 차단 ▲후드 기준 세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조리흡이 조리사의 반대편으

로 흐르도록 해 조리사가 들이마시는 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흡 방지기는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조리흡을 빨아들여 후드까지 보내는 기구다.

특히 흡 방지기 설치에 서울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검토한 방식으로 기술지침을 준용하기 어려운 기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사용 후드는 차단하는 방안도 이뤄진다. 학교 급식실 조리기구는 전체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는 자동 댐퍼를 통해 닫히도록 해 사용풍량 증가 효과를 구현하는 방안이다. /이현진 기자 lhj@

파주 '평화경제특구 조성' 공감대 확산

'평화경제 토크콘서트' 열려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추진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파주 평화경제 토크콘서트'가 지난달 31일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레이첼홀에서 열렸다.

파주시에서 주최하고 파주시민포럼에서 주관한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파주시장 및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민추진단'과 시민 25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특구 지정에 대한 파주시민의 열의를 실감케했다.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이후 시민들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로서 파주의 가치와 당위성을 알리며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차문성 파주향토 문화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정세의 전문가 정세현 전(前) 통일부 장관과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해 ▲남북 정세와 경제 상황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어 토크콘서트에 앞서 정보 무늬(QR 코드)를 활용해 시민들로부터 받은 질문들을 함께 나누며,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앞으로 도 52만 파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김포공항·남산 일대 도시재생 의견 청취

서울시, 내일 오전 10시 공청회

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변경 추진의 기반이 된다.

시는 공청회에서 김포공항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대상지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수단 산업 중심의 서남권 신경계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지정하는 활성화지역(106만 7713㎡)은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포함한다. 공항 배후시설 노후로 쇠퇴하던 김포공항 일대를 공항과 연계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를 조성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존 김포공항 혁신지구와 주변

저이용부지를 포함한 활성화지역 지정으로 김포공항 일대를 UAM·모빌리티 등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연계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명동~예장공원~남산을 함께 지정해 남산을 식생과 생물 서식지가 잘 보존된 '도심 생태환경의 보고(寶庫)'로 발돋움시킨다.

시 관계자는 "남산의 도시재생은 식생과 생물 서식처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인공 구조물의 자연성을 복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다양한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해 남산을 '생태환경 재생'의 대표 사례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1 | 해질 / 19:50

6월 4일 (화)
음력 : 4월 28일

수도권 날씨
16~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인천 11/28, 동두천 12/29, 가평 11/29, 파주 12/28, 서울 16/29, 양평 12/28, 인천 16/26, 수원 16/28, 용인 16/28, 평택 13/28, 백령도 15/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美 국무부, 이스라엘 전시내각과 가자지구 내 새 휴전안 논의
▲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 탄생...집권 여당 세인바움 후보 당선 /사진 뉴시스

▲ 푸틴, 베이징 방문에도 천연가스 계약 불발...“중국 측 요구 과도”
▲ 몰디브, 이스라엘 국적자 입국 금지...이스라엘은 “출국 권고” 맞불



▲ 푸바오, ‘학대 논란’ 속 대중 공개 앞뒤...“막바지 적응훈련 진행 중” /사진 뉴시스
▲ 트럼프, 미국 내 금지 추진했던 ‘틱톡’ 가입...하루 만에 300만 팔로워 확보



대상
베트남 공장동
2곳 증설
L1



Life

LG전자
“우리의 미래
함께 지켜야”
L4



자립준비청년 돕고, 장애인 채용... “함께 걷는 미래 그려요”



① 에이피알 본사의 임직원 전용 사내 카페인 '피크 커피'에 채용된 청각 장애인 직원들이 커피를 만들고 있다.

② 에이피알이 자사 패션 브랜드 넬디 제품을 바자회에 지원하고 있다.

③ 에이피알이 '지속가능한 메디큐브 캠페인'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화장품 공병들.

/에이피알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에이피알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에이피알만의 포용력을 바탕으로 젊은 장애인 직원,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인재를 고용해 함께 상생하는 미래 사회를 모색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3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에는 총 63명의 임직원과 23명의 장애인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20년 2월 에이피알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무엇보다 23명의 장애인 직원은 에이피알 전체 임직원 457명의 4.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에이피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55%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0%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이에 비해 에이피알의 장애인 직원 고용 성과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의 약 3배에 이르는 셈이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직원의 직무는 사무 보조, 물류, 환경미화, 헬스케어, 바리스타 등으로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에이피알은 지난 2023년 9월, 에이피알 임직원 전용 사내 카페인 '피크 커피'를 마련하고 5명의 청각 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기도 했다. '피크 커피'는 에이피알 임직원들을 위한 중간 휴식처로 청각 장애인 바리스타가 직접 만든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근무환경 적응 체계적 교육훈련 경력단절여성, 직무지도교사로

자립준비청년돕기 바자회 물품 기부 대한적십자사 통해 재난 피해 지원 일회용품 최소화 등 환경보호 실천

에이피알은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젊은 장애인 직원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편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도 지속 설치하고 있다.

또 에이피알은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근무 환경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에이피알은 국가 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을 정규직 직무지도교사로 채용했다. 이처럼 에이피알은 여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성장한다는 에이피알만의 근본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창립 초기인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에이피알은 오는 5일 동방사회복지회에서 열리는 '자립준비청년돕기 동방나눔바자회'에 약 1억원 상당의 '넬디(NERDY)' 의류 제품을 전달한다. 넬디는 에이피알이



에이피알 관계자가 지난 2022년 9월, 하남소망의 집에 수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다.

이번 바자회는 만18세가 넘어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나홀로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행사다. 현행법상 만18세가 넘은 청년들의 경우 사회 진출 준비 정도와 관계 없이 거주하던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갓 청소년에서 벗어난 청년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서 자립을 이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에이피알은 동방사회복지회의 바자회를 후원함으로써 청년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은 앞서 올해 3월에도 약 1억 3000만원 상당의 자사 '넬디(NERDY)' 의류 제품을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진행하는 '위(WE)대한 나눔 바자회'에 기부했다. 에이피알은 사회 공헌을 위한 나눔을 시작한 이래 대한사회복지회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어 왔다. 해당 바자회를 통해 조성한 수익금은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됐다.

이밖에 에이피알은 2023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강릉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역 집중호우 수재민 지원 성금으로 각각 5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에이피알은 대한적십자사의 1억원 이상 고액 기부 법인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기업'에도 등록됐다.

에이피알은 친환경 경영과 친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순환과 뷰티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에이피알이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지속가능한 메디큐브 캠페인'은 메디큐브 화장품 공병 1개당 3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공병 수거 활동이다. 올해 1분기까지 에이피알이 회수한 공병은 총 4만개 이상이다. 지급한 누적 적립금은 1200만원을 넘어섰다.

에이피알은 환경과 피부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삶을 만들자는 철학을 갖고 있다. 불

필요한쓰레기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유다. 에이피알은 '지속가능한 메디큐브 캠페인'으로 수거한 공병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환경 오염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에이피알은 삼립 자원 관리에도 동참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물류 이동 시 제품 파손을 막는 완충재로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종이 상자, 패드 팩, 필팩, 지아미 등을 사용한다. 일부 제품 포장에는 식물성 함량이 높은 소이 잉크 및 국제산림관리협회(FSC) 인증 포장재를 활용한다.

에이피알은 임직원들에게 텀블러 사용,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을 권장하며 일상 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자회사 직접 고용을 통한 환경 미화 인력 채용으로 사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과도 적극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에이피알의 저자극 뷰티 브랜드 '에이프스킨'은 비건 뷰티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동물 보호를 위해 제품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이브 비건' 인증 획득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 에이피알에 따르면 '이브 비건' 인증은 세계적인 비건 인증 기관인 프랑스 이브 비건 협회에서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에이피알은 뷰티 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경영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향후에도 비건 인증, 플라스틱 저감, 리필 제품 출시 등 다양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브랜드 윤리와 진정성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프로야구 LG, '강세' 임찬규 허리 통증 호소에...선발 등판 일정 조정
▲한화, 새 사령탑은 6년 전 NC 떠난 '김경문'...등번호는 다시 '74번' /사진 뉴시스

▲샌디에이고 김하성, 4경기 연속 안타 기록...경기는 3대4 패배
▲U-23 본선 '고배' 황천홍, K리그 대전 사령탑으로 4년 만의 복귀



▲분데스리가 뮌헨, '요나탄 타'에 관심...김민재와 '주전 경쟁' 가능성 /사진 뉴시스
▲배구 도로공사-정관장, 트레이드 단행...'이예림·신은지'↔'하효림·김세인'